

금주의 기도



평강의 해바람의 아버지, 고통하는 인류에게 참 평화를 주
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
나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파문과 내란, 전쟁과 테러로 인
한 살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들이게 하시고 평
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
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추노
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
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4월 18일 (토) 제 152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홀로코스트 이후 새롭게 생동하는 희망의 땡!

CT, 모국 찾은 이민 3대손의 눈 통해 본 복음현장 소개

아르메니아 인종대학살 100주년...

서양사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는 오고 가는 진리가 있다. 바
로 “1915년을 잊었기에 나치의 홀로코스트가 있었다”라는 역사의
왜곡 문제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벌어진 아르메니아인 학
살사건은 근 현대 최초의 학살사건으로 악명이 높고, 나치 홀로코
스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연구된 학살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정
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
한 사건이기도 하다. 희생자 수는 주장하는 측마다 다르지만 100
만에서 1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오토만 제국에 의한 아르메니아 민족에 대한 대학살의 사례 하
나 하나는 인간 잔인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아무런 단죄 없이 그냥 넘어가버렸고 100년이 지난 지금
까지도 아르메니아 민족은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인정할 것을 세

아르메니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나
라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민족은 노아의 방
주 신화로 유명한 지금의 터키 동부 지역의
아라랏산 근방에 거주하면서 고도의 문명
생활을 누려왔다. 아르메니아는 301년 당
시 군주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기독교를
공식 종교로 정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
된 기독교 국가로, 주위의 국가들이 모두
이슬람으로 개종할 때도 개종을 거부해 근
방에서는 아르메니아 민족만이 기독교 민
족으로 남았다. 바로 이 때문에 기묘한 생
기면 아르메니아를 이슬람 국가로 개종하
기 위한 이슬람 제국들의 침략이 이어졌다.
아르메니아의 역사는 정말 기구했다. 역
사상 이를 빼나 알려졌다고 하는 제국들은
예외 없이 아르메니아를 밟고 지나갔다. 페
르시아, 알렉산더제국, 비잔틴제국, 몽골,
사산조 페르시아, 오스만 투르크 그리고 러
시아 등이 그들이다. 그야말로 강대국들 사
이에 낀 동네북 같은 신세였다. 바로 흑해
와 카스피해 사이에 낀 지정학적 위치 때문
에,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격돌하는
충돌지역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쟁이나 외부의 침략, 학살 등에 대해서
는 이미 이골이 날대로 난 아르메니아 사람



1915년 터키에게 대량학살을 당한 아르메니아인들이 2015년 100주년을 맞아 국제사
회에 그들의 참상을 호소하고 있다.

들이지만, 1915년 터키에 의해 자행된 인
종 청소는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절대 씻
을 수 없는 한을 심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닐 정도로 그 상처는 아직까지도 치유
되지 못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대학살이 벌어지기 전 오토

만제국에는 약 3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었다. 1915년에 터키 정부가 수립
한 정책에 따라 실행된 대학살로 150
만-2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처참하
게 학살당했다.

〈3면으로 계속〉

하나님이 정해두신 단계로 “리더” 세운다!

리더십저널, 풀러신학교 로버트 클린턴 교수의 리더십 개발 원리 소개

풀러신학교의 로버트 클린턴 교수는 리더십 분야에서 ‘리더십 개발’에 독보적인
자리를 차지한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이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의 유형들을 분류해 명쾌하게 설명한다. 바로 역사적, 성경적 위인들이나 오
늘날 우리와 함께 사는 지도자 수백 명을 연구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경
적 지도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실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려면 한 사람이 리더로 세워지는 과정을 이해해
야 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리더를 세우시는지 보여주며, 특
별히 리더가 밟아나가야 할 공통적인 단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모세와 다윗,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 수 있다. 이
처럼 하나님이 정해두신 단계를 이해한다면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데 큰 도움
이 된다.

부르심-훈련-사역-은사개발-수렴현상 단계 거쳐
내면에 그리스도 형상 나타나는 것이 가장 중요

1단계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부르시는 단계다.

한 사람의 성품, 인생의 경험, 리더로 세워지는 시기 등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
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리더로 세우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신다. 건물을 세우려고
해도 부지가 있어야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그
분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2단계는 훈련이다.

이는 신학교의 지적 훈련과정일 수도 있고, 사역의 현장에서 배우는 기술적 훈
련과정일 수 있다. 무엇이라고 정해진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되었던 리
더십이 훈련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단계에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두는 영역은 사람의 내면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진정한 훈련은 마음의 시험
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3단계는 사역이다.

사역의 현장에서 리더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단계다. 사람들
은 대체로 이 단계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다.

〈3면으로 계속〉



2면

교회별 결혼 신앙고백문
갖고 있어야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재양육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달아가도록 한다!



16면

사역 현장을 찾아서
HYM청년연합집회

P.C.A 한인교회 연합회 총회 및 수련회

미국 장로교 (P.C.A.)의 한인 교회 연합회의
전체 모임과 수련회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P.C.A 산하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5년 4월 27일 (월) - 4월 30일 (목)

▶ 장 소: 나침반 교회(담임 민경엽목사)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EL. (562)691-0691

뉴라이프 선교교회(담임 박영배목사)

1430 E. Orange Thorpe Ave Fullerton, CA 92831
TEL. (714)526-6562

PCA-CKC 회장: 민경엽목사 총무: 김성철 목사 서기: 김상선 목사



시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여러 증후군 가운데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담 회피 증후군”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든 부담 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직장인은 부담스런 직장을 회피합니다. 결혼 정년에 있는 젊은이들은 부담 없는 배우자를 원합니다. 며느리도 부담 없는 시부모를 원하고 시부모 역시 부담 없는 며느리를 원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부담이 없는 과목과 선생님을 원합니다. 선생님조차도 부담 없는 학생들을 선호합니다. 심지어 신앙인들도 부담 없는 교회, 부담 없는 설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마한 봉사과 헌신을 요청할 때 부담이 되

면 회교를 떠나고 신앙생활 자체를 회피해버립니다. “피터팬 증후군”, “부담회피 증후군”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주님! 제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겟세마네동산에서의 예수님 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었던 하나님의 계획인 인류 구원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다”(요19:30). 자기 뜻이 이뤄지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입니다. 성도는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마16:24).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나”이기에 지고 가야하는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원통해도 차마 말 못할 사연이 담긴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고 가야합니다. 이런 “나이기에 내가 지고 가야하는 나의 십자가”는 내려놓고 피하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감당하고자만 하면 그때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들도 우리들의 십자가를 묵묵히 인내하며 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인생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청년 몇 명이 배낭들을 메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 큰 냇가에 다다랐습니다. 그 냇가 앞에는 큰 돌들이 여러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안내하던 아프리카 원주민이 말합니다. “자 이제 돌 한 개씩을 가슴에 안고 냇가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배낭이 무겁던 청년 하나가 나는 그냥 건너가겠다고 냇가로 들어섭니다. 다른 한명의 청년이 쟁쟁게 그중에 제일 작은 돌 하나를 갖고 냇가로 들어섭니다. 다른 몇 명의 청년은 이제 남아있는 제법 큰 돌을 안고 냇가로 들어섭니다. 냇가로 들어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렇게 평온하게 보였던 물들이 갑자기 거세게 몰아칩니다. 배낭만 메고 건너던 청년은 벌써 이리저리 몸을 추스르지 못합니다. 작은 돌 하나 쟁쟁게 주위간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휩쓸려지 않고 안정적으로 냇가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이기에 지고 가는 십자가는 이런 겁니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 승리의 능력, 십자가 치료의 능력, 십자가 위로의 능력, 십자가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그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고전15:6). 그러나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성도는 120명(행1: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부활을 처음 본 사람도, 예수 부활을 처음 알린 이도 아이로니컬하게도 베드로나 사랑받던 제자나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고백처럼 예수님 부활을 역사적 사건 “내가 주를 보았다”(요20:18)로 확신하고, 또한 마르다의 고백처럼 나의 부활로 확신(요11:25-27)하여 성령 임재를 사모하는 120명 중에 있나요? 혹은 380명 중에 내가 있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별 결혼 신앙고백문 갖고 있어야

TGC, 동성결혼 허용 문화서 법률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5가지 준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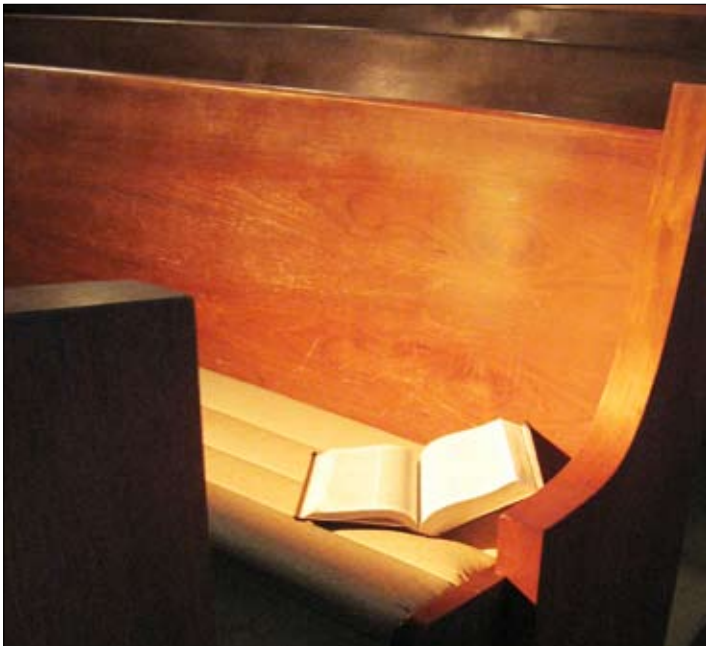
현재 목회자들은 동성결혼 예배 집전을 요구받고 있고, 결혼 전 예비결혼 프로그램이나 수련회에 동성 배우자들도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압력에 놓여있다. 교회들은 또한 성경적 성 윤리에 반하는 음악목사나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스태프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 목회자가 인간 생명의 거룩함이나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창조하신 목적들을 가르치거나 설교하면, 당장 “정치적”이란 소리를 듣게 되고, 해당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는 종교기관으로서의 세금 면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위협을 받게 된다.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법적 현실들

은 곧바로 교회가 교회공동체가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에 영향을 준다. 물론 대부분의 교회 내규나 치리 원칙들이 헌법적 보호를 받고는 있지만, 이러한 보호가 실제로 소송이나 위협에서 얼마나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이 같은 문화적 흐름에서 복음 중심의 증인으로서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경적 진리 안에서 확고하게 서있어야 하며 동시에 교회공동체가 지키고 믿는 대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준비를 해야 한다(5 Actions Churches Should Take in a Changing Legal Culture).

1. 결혼에 관한 교회 신앙고백문을 만든다.

결혼 관련 신앙고백문을 만든다고 해서 아주 자세하게 규정하거나 정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결혼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교회정관, 신앙고백 그리고 다른 교회내규들에 교인들이 어떠한 규정이나 자격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아야 한다. 바로 결혼의 정의가 현재 법, 신앙 그리고 문화 안에서 뜨거운 감자처럼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교회공동체의 고백은 온 회중과 문화에 명확한 정의나 입장을 천명해, 결혼



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회공동체의 정식 회원이 되는 절차나 교인에 대한 권징 절차 그리고 교회 회원 취소 절차 등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참고로, 복음을 중심으로 믿는 교회나 교회사역이 만약에라도 동성애자나 이들을 옹호하는 세력들로 인해 소송과 같은 법률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도움을 주는 단체가 있다. 바로 ‘Alliance Defending Freedom’으로 소송이나 변호사 비용 없이 소송을 대리해준다.

결론으로, 오늘날의 정치적, 법적, 그리고 문화적 기후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공동체의 사

결혼증명서 발급관련 교회정관, 신앙고백, 교회내규 작성

신앙에 맞춘 스텝채용·시설물사용·교인치리 내규 필요

이나 인간성에 관련된 어떠한 교회결정을 가능하거나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2. 신앙에 부합한 교회 스텝 채용규정을 만든다.

교회의 모든 스텝들이 교회의 신앙고백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라 살아갈 것을 규정해 놓아야 한다. 또한 모든 스텝들에게 맞는 ‘역할규정’을 체계 있게 만든다. 각각의 역할규정에는 신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들과 동시에 영적 책임들을 열거해, 교회의 선교 사명에 모든 직원들이 유기체처럼 하나로 움직이게 한다.

3. 교회 시설물 사용 내규를 만든다.

교회에 만일 공 예배나 프로그램, 행사들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다면, 교회는

만드시 자세하게 어떻게 빌리고 누구에게 대여가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성문화된 사용 내규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규에 신청 절차들을 알리고, 특히 시설물의 신앙적 성격 - 교회공동체나 교인들의 신앙 성장이나 영적 훈련 - 그리고 교회공동체의 신앙고백에 부합하지 않은 단체나 개인에게는 대여가 금지된다는 것들을 규정해 놓아야 한다.

4. 결혼예배 집전내규를 만든다.

교회는 반드시 교회공동체가 인정하는 결혼과 함께 담임목회자가 기록한 연합을 집전할 수 있는 상황들을 규정한 성문화된 결혼예배 집전내규가 있어야 한다. 동 내규는 목회자가 자신의 신앙양심에 따

라 결혼예배를 집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보호장치도 같이 더하면 더욱 좋다.

5. 교인치리 내규를 만든다.

교회공동체에서 “하나”된 교인들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한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권징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교회법상의 보

역에 새로운 도전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바로 지금의 도전들에 지혜롭게 응전하면서 내일을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으로 나아가면 교회는 믿는 대로 사역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유를 온전하게 보전할 수 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장서: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2015년 봄학기 박사과정 특강안내

▶ 4월 특강 (April 20-24, 2015)

CC 843 Current Issues in Counseling and Psychology

Dr. Jong Cheon Lee

▶ 6월 특강 (June 9-11, 2015)

CM 827 Church Music and Literature

Dr. Dae Gweon Kim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BA in Music 음악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MA in Music 음악학석사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디아스포라들 모국에 복음의 횃불 점화

CT, 모국 찾은 이민 3대손의 눈 통해 본 복음현장 소개

〈1면에서 계속〉

3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 중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구가 죽임을 당한 ‘인종 대청소’가 자행된 것이다. 당시 터키 정부는 누구나 치를 떨 정도의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 아르메니아 민족을 학살했다.

1915년 4월24일, 터키 군은 325명의 아르메니아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을 체포해 처형했다. 대학살의 서막은 이렇게 올랐고 계속적으로 아르메니아 남자들이 학살됐다. 당시 터키 정부는 아르메니아 남자들을 모두 군대로 소집했다. 강제 징집된 아르메니아 남자들은 터키 군에서 얼마간 훈련을 받다 나중에는 모두 무장 해제된 뒤 50명에서 100명 단위의 그룹으로 나뉘어, 다리 건설과 도로공사 현장에 동원됐다. 얼마 뒤 이들은 모두 집단적으로 공사장에서 터키 군에게 학살됐다. 이런 식으로 수십 만 명의 아르메니아 남자들이 터키 군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다.

남자들에 이어 남아있던 어린이들과 부녀자들, 노인들은 모두 사막으로 강제 추방돼 굶주림과 갈증, 학살로 죽어갔다. 한 예로 35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을 시리아의 사막으로 추방했는데 시리아에 도착했을 때는 단지 35명만이 살아남았다.

이러한 대학살로 인해 아르메니아 민족의 운명은 완전히 변하게 됐다. 고대 시대부터 살아온 땅과 가족과 재산을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다. 현재 러시아에 200만 명, 미국에 100만 명을 비롯해 107개국에 모두 900만 명의 디아스포라 아르메니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다.

바로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아르메니아인 후손인 앤-마가렛은 지난 2008년부터 모국을 다시 방문한 침례교 목회자인 아버지(Joseph Hovesplan, Temple Baptist Church in Montreal)와 함께, 아르메니아 현지에서 두 부

류의 사람들을 목격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인구의 92.5%가 기독교의 일파인 아르메니아사도교회(Armenian Apostolic Church)를 믿는다. 시리아정교회, 콥트정교회에 비해 의례적이고 보수적인 면이 강하다. 아르메니아는 이슬람교 국가의 침입을 받았으면서도 그 영향력이 오히려 반대로 됐기에 정교회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주의에 물들어, 오늘날의 아르메니아를 만든 주범이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원망만을 되새기고 있다. 결국 1년에 0.3%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무신론에 빠지고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국가인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다름 아닌 경제적 빈궁이다. 전체 인구의 32%가

일대일 만남과 돌봄을 통해 희망의 끈을 잡게 만들게 했다.

지역 극빈층 일대일 만남과 섬김은 이미 16년 전부터 사역하고 있는 C.C.C가 효과적으로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가슴에 다시 영적 충전에 대한 갈급함을 심어 놓고 있다. 따라서 쿠르(Cru, C.C.C의 아르메니아 어)는 사역의 목적을 다름 아닌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 간의 관계 증진 그래서 제자들을 제자로 만들어 해당 지역 교회에 출석하면서, 계속해서 주변 다른 신앙 단체들과의 관계 회복과 증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앤-마가렛이 아르메니아 현지에서 본 희망의 메신저들이다.

결론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모두 몰살당한 대학살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열매를 맺는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나는 대학살 당한 민족의 아들이며 딸이다. 그러나 그 아픔이 내 미래를 막아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아르메니아에 다시 복음의 횃불을 점화시키실 것이다”고 선포하는 희망의 메신저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4월 24일과 25일에는 지구촌 구석구석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1915년의 대학살을 기리기 위해 애곡할 것이고, 먼 저 간 선조들의 이름을 부르며 슬픔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현지에서는 오히려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미래,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기쁨에 춤을 출 것이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단계로 “리더” 세운다!

〈1면에서 계속〉

이는 사역의 생산성, 활동, 열매 등을 통해 리더의 자질을 평가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4단계는 은사가 개발되는 단계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워진 사람은 훈련과정에서 연단된 삶을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련 현상이 나타난다.

리더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자신의 은사 조합, 경험, 기질에 맞춰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단계에 이르면 리더는 자신의 은사를 더욱더 향상시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사람을 세우신다.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까지 오래 세월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어떠한 일을 수행하도록 장을 여시기 전에, 그 사람의 은사가 발견되고 개발되도록 끝없이 훈련시키신다.

소망 칼럼

짐을 서로 나누어지자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오랜 옛날에 담임목사 자리가 비어 있던 어떤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 대표들이 스피전 목사를 찾아와 담임목사를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조건을 제시했다.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는 목사, 불타는 사랑으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 자비로운 마음으로 상처를 싸매 주는 목사,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목사, 성품이 좋고 적극적인 목사,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목사, 외모가 잘생긴 목사, 행정을 잘하는 목사, 창의적인 지도력으로 양떼를 인도하는 목사’ 그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스피전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 생각에 그런 목사는 땅에 없으니, 차라리 하늘의 천사를 담임목사로 초청하시지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진을 치고 있던 광야를 방문했다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았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 잡고 앉아 백성들의 송사를 다루고 있었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자니 모세는 지치게 되고 백성들도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권면하였다. 백성들에게 규례와 율법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고, 또 백성 가운데 능력과 덕을 갖춘 사람을 뽑아서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어 짐을 나누어지라고 말하였다. 그 리고는 “이렇게 그들이 자녀와 짐을 나누어지면, 자녀의 일이 훨씬 가벼워질 걸세”라고 했다.

요즘 목회하는 목사들은 홀로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 모습은 곧 지쳐가는 모세와 같다. 교인들은 목사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일지 모르나, 많은 교인들을 돌보고 지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감당해야 할 짐이 수없이 많다. 교회에서 한 사람에게 모든 사역이 집중되면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은 지쳐간다. 이것을 탈진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burn out’이라고 하는데, 타서 재가 되어버렸다는 뜻이다. 교회는 하나님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교인들도 목회자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밋줄은 굵은 실 한 가닥으로 되어있지 않다. 가는 실 한 올 한 올이 모여서 더욱 강한 밋줄이 된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개인성”과 “단체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1대 1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개인적이다. 그러나 한편 그리스도인은 개인일 뿐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이것은 마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가족의 한 일원이 되는 것과 같다. 개인은 개인이 져야 할 짐이 있고, 공동체에는 서로 나누어 져야 할 짐이 있다.

오 헨리의 단편 소설인 “강도와 신경통”을 보면 어느 날 한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주인에게 칼을 들이대며 두 손을 들라고 한다. 그러나 주인은 한쪽 팔만 들면서 왼쪽 어깨에 신경통이 있어서 왼팔을 들 수 없다고 한다. 그러자 강도는 자신도 신경통 환자라며 음성을 부드럽게 누그러뜨리고, 주인과 증세와 치료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공통점을 발견한다. 이처럼 서로 공통점을 찾아내어 함께 나눌 때 강도는 더 이상 강도가 아니며, 주인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증오에서 해방된다는 내용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허물없는 사이가 되는 것은 이미 허물을 서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하나가 되여라.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고 당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로 맺어주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은 직접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다. 고통의 짐은 서로 나눠지면 절반으로 가벼워지고, 기쁨은 서로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은 주님이 내 짐을 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마11:28). 우리에게는 져야 할 짐이 많다. 그런데 혼자서 지기에는 짐이 너무 무겁다. 짐을 서로 나누어지자.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된다(요일4:11).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지역강의 안내

April 13-17 (4월 13일-17일)
DI 8230 Cultures in the New Testament
Dr. Matthew Harmon

2015년 졸업식

일시: 2015년 5월 9일(토) 오전 9시
장소: Manahan Orthopaedic Capital Center (그레이스 대학교 캠퍼스내)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부활의 기쁨

기독교 시각으로 볼 때 인류사에 큰 해를 끼친 세 사람이 있다. 그들은 모두 유태인으로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과 공산주의를 창안한 칼 마스와 성혁명을 일으킨 프로이트라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 사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생들은 너나없이 사망의 세력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속절없이 무너졌다.

그 어떤 사람도 사망을 이길 수 없었다. 그런데 제 2의 아담으로 오신 주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다. 인류는 예부터 부활의 열망을 강렬하게 지니고 있었다. 부활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은 영생이 창조된 본래였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인간은 잃어버린 영생에 대한 그리움을 지니게 되었다.

그것을 찾기 위한 인간의 눈물겨운 노력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마치도 중세에 연금술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남으로 금을 만들겠다는 인간의 발상은 눈물겹도록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인간의 내부에 인간이 신이 되고 싶어 하는 절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열정은 인간의 교만에 근거한 잘못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요, 죄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임을 지적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만이 해결하여 주셔야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으로 오셨다.

요즘에 사람들이 자신의 스펙을 위해 노력하고 또 자신을 아낌없이 보이려고 많은 치장을 한다. 오죽 했으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자신을 꾸미기 위한 화장품 소비가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하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의 유행의 패턴과는 상관없는 몸으로 오셨다. 그래서 이사가 선지자는 메시아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이라고 했다. 고로 사람들에게 결코 주목받지 못하셨다.

또한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산동네 사람들이 무시하는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 그래서 일생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비아냥을 들으셔야 했다. 요즈음 문화로 본다면 대도시인 뉴욕이나 서울 출생이라면 한결 돋보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당시의 유명한 율법사의 가르침도 전혀 받지 않으셨다. 이런 일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시당하는 매체가 되었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누가 뭐라고 하던 개의치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시면서 사셨다. 그것이 그분의 삶의 방식이었고 존재 의미였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즐겨 행하셨으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이라면 절대로 행동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주님의 삶의 철학이셨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그리고 삼

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아담 이후로 인간을 지배하던 사망의 세력을 꺾어 버리셨다. 이제 사망의 세력은 더 이상 인간들 위에 왕 노릇할 수 없게 되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한해서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이야말로 본체에 있어서 성자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첫 사람 예수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부활의 세계로 나아가게 됨을 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길로가 마음에 심겨짐을 받았기 때문이다.

첫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하심은 첫 사람 아담의 범죄를 덮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고 인정하신다. 할렐루야!



푸 / 른 / 초 / 장

김성일 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여기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나 외롭고 지친 인생살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약하고 더러운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 그 인생은 더욱더 파멸해져갔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삶의 희망도 목적도 방향도 잃어버린 채 매일 귀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사렛 예수를 만나 주님을 통해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난 후 그 주님 때문에 인생의 희망과 목적과 방향을 찾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따라 섬기는 인생이 되는 듯 하였으나 그 주님이 어느 날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을 때, 이 여인의 가슴을 무너져 내려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고, 그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머리를 떨구셨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아픔과 고통의 탄식만 흘러나왔습니다. 그 주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유대인의 절기상 안식일에는 그 무덤에 나아갈 수도 없었기에 안식 후 다음날 이른 아침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요안나)와 함께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그 시체에 바르며 그 슬픔을 정리하기 위해 무덤을 찾아갔을 때, 그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요한복음 20장 11-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했듯이 현대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의 자세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는 대상으로만 주님을 바라보고라고 부활하신 주님보다는 죽음가운데 있는 예수님만을 찾아 자기 자신의 위안을 삼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위로와 격려만을 추구하며 축복하시는 성경구절에만 밑줄을 그으며 자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저녁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던 열 제자를 만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을 통해 복음전도자의 사명 속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오는 자들이 주님의

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며 주셨던 그 말씀 따라 일주일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 성령강림의 은혜를 사도행전 2장에서 경험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강하고 담대한 복음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부활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성령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는 우리에게 주님의 빈 무덤을 바라보며 슬관적으로 절기를 지키며 그 래도 교회서 나누어주는 삶은 계란이 맛있다 하며 자기 만족감에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로서 성령충만함 속에 복음전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절과 2장 1절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주장하시기에 성도들은 그 어떠한 죽음의 공포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5년 4월 2일은 케냐는 물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못된 영적 과대망상중에 사로잡힌 ‘알사바브’라는 이슬람 무장 단체들에 의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알사바브 이슬람 무장 단체는 케냐에 있는 가리사대학에 들어가 기독교 학생들을 무차별 공격하는 가운데 사망자가 148명, 부상자도 107명이 된다고 합니다.

(8면으로 계속)

오렌지카운티

영적대각성 전도집회



주 제: **리마스토라(미민)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
강 사: **이신웅 목사**
신길교회담임목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한국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

일 정: 은혜한인교회, 오렌지중앙성결교회, 나침반교회, 충만교회(세미나)

제1집회 4월17일(금) 오후7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목사)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전화: 714-446-6200

제2집회 4월18일(토) 오후7시
오렌지중앙성결교회(담임 이경원목사)
13522 Golden West St., Westminster, CA 92683 전화: 714-891-2370

제3집회 4월19일(주일)오후4시30분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목사)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전화: 562-691-0691

*** 교회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 및 OC교협 월례회 ***
강 사: 이신웅목사
일 시: 4월17일(금) 오전10시-12시 (점심을 준비함)
장 소: 충만교회(담임 김기동목사) 전화: 714)262-1428
18325 Horst Ave, Artesia CA 90701

주 최: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김기동목사)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에
복음을
신고
나갑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주일학교 교역자

메릴랜드볼티모아에위치한벤엘교회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에서
폴타임주일학교초등부 (1-5학년)교역자를모십니다.

자 격

- 정규신학대학원을수료하신분 (2015년졸업생도포함)
- 개혁주의적보수신앙을가지신분
- 어린이사역에서사명감을가지고계신분
- 한국어/영어이중언어가가능하신분
- 주일학교경력이있으신분우대

제출서류

- 이력서
- 졸업증명서
- 자기소개서
- 신원보증3명
- 설교비디오혹은오디오 1 편

서류마감

2015년 4월 30일
보내실곳 / 문의
David.lee@hisway.org

벤엘교회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킴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현공립학교 교육으로 망가지는 자녀들의 가치관을 힘써지키라! (상)

오바마 정부에서 밀고 있는 논란 많은 COMMON CORE STANDARD (CCSS) 의 문제들

성문란을 도모하는 심각한 공립 학교의 성교육!!

CCSS는 본래 수학과 영어, 문학을 중심으로 학업 기준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CCSS의 목표가 일반적인 기준을 보편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있으며 그외 모든 학업 주제를 정부와 교육부에서 단속(control)하고 있다. 2012년 Journal of School Health에서 “National Sexuality Education Standards (NSES): Core Content and Skills for K-12”를 출판하였는데, 이 출판은, 전국 학생들에게 나이에 적절한 성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NEA)와 Planned Parenthood가 협력하여 만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문제는 1)교과서를 만든 단체에 이미 변태 성교육까지도 홍보하고 있는 Planned Parenthood 같은 최대낙태 단체가 협력했다는 것이며 2)성교육의 “기준”이 나이에 매우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예)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성적 취향과 성적 정의”를 ‘동성애 또는 이성애 커플 사이의 낭만적인(romantic)매력으로 정의한다’라고 감정적인 것만 기준을 삼고 있으며, 거기에 따르는 아이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나, 사회와 세상에 대한 책임은 전혀 강조하지 않는다. 오히려 아기를 가졌으면 낙태를 강력히 권면하는 교육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잘못된 성교육의 기준을 학생들에게 연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교육가치관이다. CCSS의 성교육 기준에는 “학생들끼리 서로 협력하여 성교육에 대한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할당함으로써 학생들이 성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전략에 종사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라고 기준을 세웠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기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동성애든 이성애든, 자유자재로 “연습practice”하는 학습을 지지하고 홍보한다는 것이다.

Planned Parenthood는 가장 많은 정부 자금을 후원받아 최대 많이 낙태하는 거대한 회사로 알려져 있는데 비해 NEA(교육)는 국가에서

가장 큰 교사노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UN 앞에서 NEA의 대표자인 Diane Schneider은 “미국 성교육에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더 많이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며 “종교와 가정이 만든 상처에 갇혀있다. 학생들에게 구강성교, 자위, 오르가즘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도 낙태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성욕을 금지(abstinence education)하는 것을 가르쳐서는 안되고 오히려 자유주의적인 성교육이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심각한 성교육 교과서에서 찾은 작은 예들 몇개

나이 8-10세를 위한 CCSS 성교육 책에는 “Do It Yourself Masturbation – 혼자 자위하기”인데 이 책에는 사람들이 자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여러 포르노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고 “It’s Perfectly Normal-완전 정상이야!”라는 책은 구두와 항문 성교하는 사진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함께 자위하는 사진들을 보여 준다.

이런 성교육을 8세부터 받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정신과 생각, 가치관들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을까? Common Core STD(CCSS)는 꼭 법적으로 폐지되어야 되고, 모든 주와 교육청에서 반대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학부모들로부터 시작된다!

공산주의와 이슬람화 시키고 있는 심각한 공립교육의 실제

CCSS는 열등한 학업과 음란한 성교육뿐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공산주의와 이슬람화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Pearson Education은 CCSS의 주요 교과과 Gates Foundation과 함께 제휴하여 “CCSS를 본떠서 완전한 교육 기초제도”를 만들었다. Pearson회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 회사가 말하는 진정한 변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기반되고 일반화되어져 있는 교실 안의 전통적인 기독교

교 미국 가치관을 대항하는 가치관을 만들었다는 것을 Pearson 회사 선전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다.

Pearson 회사는 미국 역사를 변경하고 건국의 아버지들을 테러범, 위선자, 그리고 악당으로 만들었다. 이 회사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악한 압제국들로 취급한다. 예를 들면 “조지 워싱턴은 나라를 보호하려는 팔레스타인 테러범들과 다른가?” “제퍼슨은 위선자이지 않나? 그는 노예를 정말 하위 인간으로 생각하는 중에 독립 선언문을 작성하였나?” “만약 팔레스타인이 자살 폭격하여 이스라엘 청소년들을 여러 명 죽였으면 이것이 테러 행위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정부와 정책 및 육군 작업에 전사 보복하는 것이었나?” 등등,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배우도록 유도 질문들을 함으로써 “비미국적”이고 비뚤어진 사상으로, 결국은 공산주의적이고 친이슬람적인 사상을 불어넣는 내용들을 교과서에 적어넣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공산주의적 사상들이 영어 교과과정에도 포함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영어 교과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쓴다: “정부 관계자의 명령은 모든 시민이 순종해야 한다.” “개인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잘 되는 것보다 덜 중요하다.” 또한, 고등학교 영어과제로 학생들은 유대인들은 악하고 나치 총절을 증명하라고 하였다.

CCSS의 유지원부터 8학년 사회과목 교과과정에서 또 다른 예의 공산주의 사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평등, 공정, 그리고 기관과 규칙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설립이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시민들은 규칙과 법률을 순종함으로써 기관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

언뜻 보면 독립선언문을 반영하며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원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유”의 핵심 원리는 완전하게 생략되었다. 건국의 리더들이 옹호하였던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개인의 자유와 전체 군주적인 정부의 무전망 침입이 없이 살 수 있는 시민의 권리라는 것을 미

국 시민들이 꼭 기억하고, 이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된다. 이 자유를 빼앗기는 날, 미국은 히틀러 나치 시대처럼 공산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CSS 고등학교 세계 역사 교과과정은 노골적으로 학생들을 이슬람화 시키고 있다. 이미 신문기사들을 통해 이슬람화 되는 공립학교에 대해 소개한 것이 몇번 되듯이, 이 교과과정은 기독교를 약간만 설명하고 이슬람은 코란, 이슬람제국, 이슬람의 다섯기둥 등으로 한장 전체로 구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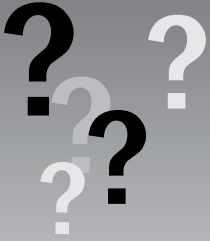
WARNING: 새로운 AP 미국 역사책에는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는 두 단락이 있고 마틴루터킹 박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나 한 전체 섹션은 노예제도와 악한 미국, 다른 한 섹션은 일본 포로 수용소와 악한 미국, 또 다른 한 섹션에는 미국 원주민과 악한 미국에 전념하고 있다. Ben Carson 의사는 ‘학생들이 이 교과 과정을 다 마치면 이슬람 ISIS에 가입할 준비되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학부모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미국 공립교육 시스템이 미국 건국 아버지의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납치되었다. 그러나 부모와 교육자는 USDoED와 반미 민간기업에서 교육의 제언을 되찾아 우리 지역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데 아래의 몇 가지 단계를 참조하라.

1. CCSS에 대하여 자신을 먼저 교육하고 다른 사람을 교육하라.
2. 당신 주에 있는 CCSS를 반대하는 운동에 참여하라.
3. CCSS를 반대하는 청원에 서명하여 주지사, 학교 위원회, 주 교육감, 검찰 총장, 및 의원들에게 보내라.
4. CCSS 시험을 탈퇴함으로써 당신 자녀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라. 탈퇴할 수 있는 법이 캘리포니아와 유타에서는 합법화되었고 뉴저지와 미시시피는 도입되었고 알칸사스와 텍사스는 금지되었고 그 외 다른 주들은 명확하지 않다. CCSS교육 탈퇴양식과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 가서 사용하면 된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현재 중동과 무슬림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며 구체적인 핍박의 실례를 알고 싶습니다.

A: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입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공산주의자들에게서 핍박을 많이 당해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지만 지금은 무슬림과 힌두교도들과 무신론자들에게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천을 가진 나라는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아브라함의 출생지요 과거 에덴동산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라크는 작년까지 기독교인의 수가 1500만명으로 추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은 IS의 끔찍한 박해로 죽거나 이라크를 떠나 망명길에 올랐고 지금은 겨우 40만명의 기독교인들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시리아와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갑자기 밤중에 집으로 들어닥치는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게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일이 비일

기독교, 미국을 비롯 전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종교 돼

비재하다고 합니다. 엄마와 딸은 아빠가 지켜보는 앞에서 강간을 당하고 아빠는 딸이 보는 앞에서 목이 베입니다. 이렇게 중동의 크리스천들은 현재 대환난중서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크리스천들은 힌두교로의 개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산 채로 휘발유에 불타 죽거나 칼과 도끼를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인도에서만 400개 이상의 교회가 파괴되었고 4,000개 이상의 가정집이 힌두교도들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신문을 보니 케냐 북동부의 가리사 대학 캠퍼스에 소말리아 무장단체인 알샤바브 대원들이 학교 기숙사에 난입하여 AK-47 소총을 들고는 기숙사학생들에게 일일이 그들의 종교를 물어보고는 이슬람이면 살려주고 기독교인들은 총으로 쏘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147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억의 기독교인 중 어떤 형태로든 신앙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이 1/3 정도라고 한다.

오늘날 미국도 기독교가 서서히 무신론자들과 동성애자에 의해 핍박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기도가 없어지고 십계명과 십자가가 철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도네시아 주의 뜨거운 이슈는 동성결혼문제였습니다. 주헌법을 개정해 동성결혼을 불법화 하려던 시도는 무산되고 10월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동성결혼은 합법화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보수 공화당의원들사이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종교 자유법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6일 마이크 펜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종교자유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각계에서 동성애자들이 데모하고 비난이 쏟아지고 대기업 등이 등을 돌리겠다고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항복했습니다. 동성애자 차별금지 조항을 넣어 다시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도 이제는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성경으로 이유로 반대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했습니다.

중동과 전세계에서 핍박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39회 총회 소집 공고 및 등록안내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The 39th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총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39회 총회에 참석하시는 총대를 위한 호텔예약일정과 등록에 관해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총회일시: **주후 2015년 5월 19(화) - 5월 22(금)** / 3박 4일
2. 장 소: **Viale Hotel (Iguazu Airport, Brazil)** <http://www.vialehoteis.com.br>
Av. das Cataratas, 2420. Foz do Iguaçu Parana Brazil Phone: 55-45-2105-7200
3. 등록비: 총회기간의 숙식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는 미화 USD입니다).

객실구분	등록마감일 및 참가비		
	1차(2월 1일까지)	2차(3월 1일까지)	3차(4월 1일까지)
2인1실(1인당)	\$ 390	\$ 440	\$ 465
1인1실	\$ 750	\$ 800	\$ 825
부부	\$ 750	\$ 800	\$ 825

* 이코 물가 사정상 지원금 사정이 미약함을 양해바랍니다.

- 1) 개인숙식: 개인적으로 숙식을 정하시고 총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등록비 \$ 130 를 납부하셔야하며, 호텔에서 식사하실 경우에는 식비 \$ 170를 납부하시거나 식권을 구매하여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 2) 총회에 하루 일찍 오실 분이나 폐회 후 하루 늦게 가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등록 및 송금안내: 송금은 미국 은행의 수표 혹은 Money order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표의 Memo란에 반드시 참가하시는 분의 성함을 기재하셔서 등록서와 함께 우송해주시기바랍니다.

* Payable to : Rev. Jung Yon Jung
* 보낼 주소 : Rev. Jung Yon Jung (112 Polo Dr. North Wales, PA 19454 USA)

5. 교통안내:
 - 1) 총회장소인 Viale Hotel에 오시기 위해서 총대분들께서는 반드시 브라질 이과수 국제공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항은 차편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 2) 공항 셔틀버스를 별도 계약해서 30분 간격으로 운영하오니 이용바랍니다. (셔틀버스 이름 : 추후공지)
전화문의: Viale Hotel (55-45-2105-7200), 김진완 목사 (54911)6757-7649
6. 접수: 총회 첫날 접수는 오후 2:00부터, 저녁식사는 오후 5:00부터, 그리고 개회예배는 오후 7:00에 드립니다.
 - 1) 등록마감일(4월1일) 이후 신청시 호텔숙박은 준비위원회에서 보장해 드릴 수 없습니다.
 - 2) 등록하신 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을 때에는 호텔의 계약상 등록비 환불은 안 됩니다.
7. 기타:
 - 1) 기타 문의사항이나 도움을 청하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등록: 백진국 목사 (5959)8242-0023 총무: 박성흠 목사 (54911)6051-683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정관일목사 서기 최동진목사
총회준비위원장 왕익상 목사 김지문목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수단의 바가라(BAGGARA)



14개 바가라 부족의 통합 프로파일. 수단 북부의 수많은 바가라 부족들은 많은 문화적 특성들이 공통적이며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들 모두 바가리어라는 아랍 방언을 사용하며 이 언어는 아랍어와 수단계 아랍어 사용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들의 이름은 ‘바가르’(bagar)라는 아랍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이것은 “소”를 의미하며 수단과 주변 국가들에서 소를 치는 다양한 아랍 부족들이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바가라 부족들은 수단의 다르푸르, 북부 코르도판, 남부 코르도판 지역의 평야에서 살고 있다. 이 지역은 소를 방목하기에서 아주 적합하며, 북부 지역의 관목이 성긴 땅에서부터 건조하거나 반건조한 황무지와 밀립이 우거진 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비는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 우기에만 내린다.

바가라 부족들의 기원은 몇 세기를 거슬러 모하메드 이전의 시대에까지 올라간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 북서부 지역인 헤자즈의 주헤이나족(Juhayna)과 관련을 갖는다고 한다. 여러 세기 동안 그들은 중앙아프리카 북부의 평야 전역에 널리 흩어지기 시작했다. 다른 부족들이 일정한 지역에 모여 살기도

했지만 그 곳이 순수한 바가라 지역은 아니다.

삶의 모습
바가라족 대부분은 목자들로 약간의 양과 염소를 기르기도 하지만 주로 소를 기른다. 사람이 타거나 짐을 부리기 위해 낙타도 기른다. 바가라 유목민들은 “푸르간”(furgan)이라는 캠프 조직으로 거주하는데, 푸르간의 구성원들은 대개 하나이상의 가계에 속한다. 바가라인들은 단순한 동형의 텐트에서 살고 있는데 쉽게 꾸러서 가족들과 이동할 수 있는 이동형 구조로 돼있다. 텐트를 짓는 방법은 땅에 구멍을 파서 어린 나무들을 박은 다음 그것들을 위에서 구부러서 꼭대기에서 묶는다. 좀 더 작은 가지를 묶어서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이엉이나 천으로 덮는다. 텐트들은 원형으로 배치되며 그 안으로 밤에 가족들을 몰아넣는다.

대부분의 바가라 부족들은 유목민이지만, 농촌공동체나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가족은 진흙 벽돌로 만들어 초가지붕을 엮는다. 가족 새끼를 위한 축사는 마을 안쪽에 짓는다. 목초지는 대개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농지는 개인 소유다.

바가라족 여자들은 가계를 꾸리기 위해 필요한 수입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하다. 그들은 소의 우유를 짜고 우유나 유제품을 팔아 현금을 벌어들인다. 번돈은 가재도구를 사거나 저축한다. 기혼여성들은 가재도구와 텐트를 소유하고 있다. 남자들은 주로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며, 또 곡물을 심고 수확한다.

바가라족의 결혼은 종종 일부다체제가 된다. 한 남자가 두 아내를 얻으면 하나는 목초지의 캠프에서 살게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농지가 있는 마을에서 살게 된다.

사촌간의 결혼이 선호된다. 남편 될 사람이나 그의 가까운 친척이 “신부값”을 지불하는데, 이 돈의 일부는 가재도구를 구입하는데 쓰

고 다른 일부는 신부의 집에서 열게 될 결혼식 음식에 쓴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혼부부는 시부모 근처에서 살게 되며, 나중에 그들은 남편이 정하는 장소로 이주한다. 이때 신랑의 가족들은 또 한번의 잔치를 연다.

바가라 사회는 부계혈통으로 이어진다. 전통적으로 각 캠프는 “샤이크”(shaykh)라는 남자 지도자에 의해 통솔되는데 이 직위는 일반적으로 세습되지만 캠프의 성인 남자가 모두가 이 직위계승에 동의해야 한다. 샤이크는 캠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에서 결정을 내리는 남자들의 대변인 노릇을 한다. 하지만 지혜와 경제적 지위에 따라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신앙
바가라 부족은 거의 100%가 무슬림으로 8개가 수니파(Sunnis)이며, 나머지는 말리크(Malikite) 종파에 속한다. 그들 모두 “이슬람의

5가지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지키므로 많은 남자와 여자들도 일부 메카로 순례여행을 떠날 수 있다. 바가라족들은 다양한 종교적 축제를 열며 삶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통과의례들도 중요시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바가라 부족에게는 극히 적은 복음화가 이루어졌다. 성경의 일부가 바가리어로 번역됐고 기독교방송도 일부 그들에게 이용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슬람신앙에 아주 독실하다. 게다가, 많은 바가라인들의 유목적인 생활양식은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 바가라 부족들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단체는 전혀 없다. 자질 있는 사역자들이 이 무슬림들 가운데 거주하며 사역하는 일이 상당히 필요하다.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기도 와 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동성애 포용위에 성경 다시 써야” NYT 칼럼 물의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프랭크 브루니(Frank Bruni)가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들을 죄인이라고 보는 것은 ‘오래된 문서’(ancient text)에 기초한 판단”이라면서 성경을 다시 써야 한다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올해 50세로 저널리스트이자 동성애자인 그는 오랫동안 뉴욕타임스의 기자로 활동하다 해외 특파원, 백악관 출입기자, 맞짱 칼럼니스트 등을 거쳐 기병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다.

브루니는 칼럼에서 “성경이 기독교인들을 오래된 신념에 가두고 있다. 이들을 포용하기 위해 성경을 다시 써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다. 성경은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들보다, 오래된 문서들의 흩어진 구절들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는 시간이 여전히 멈춰 있거나, 과학과 지식의 발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는 “성경은 모든 기록에 저자·문화·시대의 맥락과 편협함이 들어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성애자 크리스천은 가능한가: 동성애 문제에 사랑과 진리를 담아 답하다(Can You Be Gay and Christian: Responding With Love and Truth to Questions About Homosexuality)”의 저자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박사는 카리스마뉴스에 반박글을 올렸다.

브라운 박사는 “헌신된 유대인이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단순히 편협함과 맹정으로 가득한 기록이 아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우리 신앙에는 어떠한 바탕도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도덕 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에 대해 잊으라. 브루니의 설명대로라면,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어떤 것도 불멸 이유가 없어진다. 브루니는 또한 성경의 권위를 불드는 우리들에게는 과학과 지식의 발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세계의 모든 과학 발전은 ‘무엇이 도덕적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함께하도록 만드시지 않았다는 우리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다.

브라운 박사는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내세우는, 성경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새로운 문서나 고고학적 혹은 언어적 발견이 아닌 주로 감정적인 논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동성애적 삶을 지지하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성애 고객거부 꽃집주인에 성금담지

동성 결혼식을 올리는 고객들에게 종교적 신념을 내세워 꽃을 팔지 않았다가 소송을 당한 미국 워싱턴 주의 꽃집 주인에게 성금이 담지하고 있다.

6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 본사를 둔 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닷컴에 따르면 워싱턴 주 남동부 리치랜드 시에 있는 꽃집 ‘알린즈 플라워즈’의 주인 메리벨 스투츠만(70·여)을 돕겠다는 후원자들의 모금액이 10만 달러를 넘어섰다. 사이트에 실린 모금운동 소개 글은 “스투츠만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일어섰기 때문에 사업체, 집, 저축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남침례교 교인인 스투츠만은 2013년 고객들인 로버트 잉거술과 커트 프리드가 동성 결혼식에 사용할 꽃을 주문하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다른 꽃집으로 가라고 권했다.

잉거술-프리드 커플은 스투츠만의 서비스 거부 행위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워싱턴 주 법을 어긴 것이라며 스투츠만과 꽃집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워싱턴 주 검찰도 차별금지법

년 88세, 술러 목사는 2013년 식도암 진단을 받고 치료료를 받아왔으며, 이날 시골에서 소천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다.

술러 목사는 미국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커뮤니티 교회의 시조로, TV 설교 프로그램인 ‘능력의 시간’으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노먼 빈센트 필 목사로부터 영향을 받은 ‘적극적 사고방식’과 긍정 메시지로 변영신학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1950년대 당시 ‘자동차극장교회’를 개척하고 이른바 ‘구도자’를 위한 교회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이머징교회’의 선구자로도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는 2006년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준 이후 부자간·남매간 불화와 TV 시청자수 급감, 현금 감소가 이어지면서 2010년 파산 신청을 한 뒤 모습을 감췄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미국인 56% 동의

바나리서치 그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람들이 믿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다섯 가지 사상을 조사해 지난 1일 발표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사실은 ‘예수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가설과 예술, 거짓과 오류를 통해 예수는 신화로 꾸며지고 때로는 폄하됐으며 심지어 허구로 선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미국인의 92%가 ‘예수는 분명히 인간이었다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밀레니엄 세대인 젊은이들 중에서는 이 수치가 다소 내려가 87%를 기록했다.

다음은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다. 과반수인 56%가 여기에 동의했으며 예수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이슬람의 모하마드나 불교의 부처처럼 단순히 ‘종교의 영적지도자’라고 본다는

응답이 26%를 차지했다. 또 18%는 ‘예수의 신성에 대해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밀레니엄 세대에서는 이번 사항에서도 다수의 차이가 드러났다.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는 젊은이는 48%였으며 그중 영적 지도자였다는 시각이 35%나 됐다. 30-40대 X세대는 예수의 신성을 55%가 믿고 있었으며 베이비부머는 58%, 노인층은 62%가 믿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수도 죄를 지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52%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공생애 사역 이전 시기에 죄를 범했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이와는 달리 46%는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죄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밀레니엄세대는 56%가 전자에 동의했으며 X세대와 베이비부머, 노년층 세대에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는 기본적인 단계를 여전히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 이상이 ‘예수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신앙은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특히 여성의 경우 68%로 남성의 56%보다 훨씬 많았고 흑인(80%)이 백인(6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편 돈을 더 벌수록 신앙의 열기는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봉 10만달러 이상 계층에서는 53%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에 중요하다’고 답변했지만 5만-10만달러 소득층에서는 63%, 5만달러 미만에서는 65%가 동의해 소득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구원의 길에 대한 믿음에서도 현대인들은 갈등구조를 드러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63%는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기 때문에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2%는 ‘천국에 못 간다’고 응답했으며 15%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바나 리서치의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의 2명이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센타



저자: 라흥채 목사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시주론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시주론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판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14)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교회 - 교회의 확장 (1)

성경은 초대교회의 탄생과 확장에 관련된 사건들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려준다.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를 예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풀어간다. 그는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 승귀, 그리고 성령강림을 하나로 묶어 놓았다. 오순절 사건은 '구속사건'의 적용으로서의 교회의 출발점이다.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전체적 흐름을 교회의 확장이란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 물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행1:8)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질문: '사도행전'에 기록된 놀라운 초대교회의 확장은 과연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가?

1) 교회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일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졌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성도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교회의 확장을 누구에게 맡기셨을까? 교회의 확장이란 복음을 전파한 결과로 이루어진다. 오순절 사건으로 시작된 완성된

예수의 '구속사건'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이 일은 수고와 희생을 감수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대표적인 인물을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중심에 있다. 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한 인물이다. 나머지 13장부터 28장은 이방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도바울을 핵심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교회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확장되었다. 왜 누가가 이런 형식으로 '사도행전'을 구성되었을까? 그것은 저자인 누가의 의도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사역을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하였을 뿐이다.

'사도행전'을 지리적인 관점에서 구분해보자. 예수의 명령대로 교회의 확장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과 성장하는 모습을, 8장에서 12장까지는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된 내용을, 13장부터 21장 상반부까지는 바울의 1차-3차 전도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된 사실을, 마지막으로 21

그렇다고 교회의 확장이 사람에게 의해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의 눈물과 열정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마치 그들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공로를 교회역사의 중심이 두어야 할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포함한 초대교회와 연관된 자료를 통하여 사람을 세우며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베풀어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순종하며 향하신 십자가의 길은 곧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었다. 복음의 정수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세상의 모든 일을 지혜와 능력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받아 전도와 선교에 힘쓰던 자들의 입에서 복음이 전파되면 순순히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킨 것이다. 샤프는 백부장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 또는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에 교회가 서는 일을 그 예로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연도를 61년 전후로 본다. 그렇다면 그 전에 로마인들은 전혀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했는가? 아니다. 로마에 남겨진 최초의 기독교의 역사적 흔적은 그보다 약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속 역사가였던 수에토니우스는 그리스도의 사주를 받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였다고 기록하였다. 초기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 대부분이었으며, 아마도 그들 사이에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논의가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것으로 본다.

■ 성경이 보인다 - 에베소서 1:1-14, 사도행전 28:28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가 누가 구원을 받을지를 결정하신다. 인간에게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을 결정할 자격도 능력이 없다. 그렇다면 복음전파는 헛것인가? 하나님이 모두 결정하는데 왜 애써서 복음전파를 위해 애써서 기도하고 전도와 선교를 실천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자신의 일을 대행할 자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확장은 영적인 황무지에도 분명 하나님의 길을 있다고 확신하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교회 확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따라가는 것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일이나 사람을 사용하심

장 하반부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그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에서의 복음전파를 기록하고 있다.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 충성을 다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이뤄졌다. 잠시 누가의 입장을 생각해보자. 그는 바울과 함께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영적 불모지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는 자신이 목격하였던 선교현장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생생하게 기록하면서 분명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꿈과 같았던 교회의 확장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라는 확신이 있다면, 교회의 확장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구원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었다. 소위 자신이 깨우친 도(道)를 전수시키며 일종의 새로운 종교적 바람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예수의 사역은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미 선택한 자들에게 구속의

다. 교회의 속성과 역할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계획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교회의 확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회 역사가인 필립 샤프는 '사도적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독자와 함께 나누려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방인들 가운데 교회를 심은 것은 주로 바울의 사역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도가 그 숭고한 선교의 길에 오르기 전에 먼저 섭리로 여러 단계에 걸쳐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다"(p. 240). 사명을



그래서 그랬던 거야? -성경의 압축파일 풀기 (6)-

이진희 목사
(달라스 웨슬리연합감리교회 담임)



솔로몬은 왜 일천번제를 성막이 아니라 산당에서 드렸을까?

고대에는 산당은 모두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높은 곳(산)을 신성시했던 것이다. 기브온은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다. 그곳에 가장 큰 산당이 있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데 위 푸

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렘17:2). 산당은 성전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다니, 어떻게 된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

는 제사라면 당연히 성전에서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너희가 쫓아 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신12:2, 5-6).

하나님께서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지 말고 성전(성소)에서 제물을 드리고라 명령하셨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성전에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고 산당에서 제물을 드린 것일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에는 아직 성전이 없었다. 그러면 성막에서 드리면 되지 않는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성막을 실로에 설치했다. 그래서 한나도 절기가 되면 해마다 그곳에 올라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기도하다

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이다. 실로는 베델에서 세겜에 올라가는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성막이 실로에 세워졌기 때문에 실로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센터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수도 역할을 했다. 그렇게 실로에 성막이 380여년간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으로 성소가 옮겨가게 된다. 처음부터 성소(성막)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다윗 시대에 가서야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결국 실로에 있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다. 법궤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사울은 그 법궤를 잘 보관하지 않았다. 법궤에 대해 관

심이 없었다. 그래서 개인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왜 법궤를 실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던 것일까? 다윗 궁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일까?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렘7:14). 실로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블레셋은 법궤를 빼앗아간 뒤 얼마 후 실로의 성막까지 불태워 버렸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다. <12면으로 계속>

자기 부정과 비하, 멸절과 파괴, 비교와 열등의식에 빠져 부정적 자아상을 품고 신음하는 현대인들 그러나 여기 사랑과 은혜, 꿈과 확신으로 가득한 창조적 자아상으로 **최고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다.** 그대는 질그릇 인생인가, 청자, 백자 같은 걸작품 인생인가 연습과 리허설이 없는 **한 번 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317면 / 13,000원

이 시대 최고의 스토리텔러 설교자
소강석목사가 들려주는 또 하나의 명작!
책을 펼치는 순간,
그대에게 최고 인생의 길이 열린다.

그대, 최고의 인생을 살아라

소강석
지음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틴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하였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전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스택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막다리 예배자
264면 / 10,000원



레위기야의 신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259면 / 11,000원

재양육 통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한다!

리더십저널, 고든 맥도날드 목사가 전하는 ‘재양육’ 원칙 소개

고든 맥도날드 목사는 교인들의 재양육을 강조한다. 즉 회심과 제자도, 리더십을 위한 노력이 바로 재양육이라는 것이다 (Mastering personal growth). 바울이 강조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히 개척하고 갱신은 사람으로 개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시키는 사역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다시 태어났으니 다시 양육을 받는 것이다.

재양육은 사람을 택하는 일에서 출발한다. 그들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라. 심리 치료 따위를 하는 모임이 아니라 문제보다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간임을 주지하라.

재양육에는 체계가 있다. 우리는 처음부터 말했다. “일년 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에 세 시간씩 우리 집에서 모임 텐데 빠졌없이 참석할 게 아니라면 시작하지 마세요. 미리 준비하고 약속시간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모임 도중에 갈



사람 선택, 체계적, 다함께, 사고방법, 영적훈련 일대일 제자양육보다 모둠 제자양육이 더 효과적

수도 없습니다.” 기준을 정하자 빠지는 사람이 드물었다.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 높은 기준에 이르는 훈련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다.

재양육은 팀이 함께 하면 가장 좋다. 우리 모임의 경우, 아내 게일과 내가 함께 시작했다. 사람들은 매주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돕는지, 언제 어떻게 의견을 맞세우는지,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보완하는지 보았다. 젊은 남자들은 남자가 어떻게 여자의 리더십과 지성을 지지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았고 젊은 여자들은 여자가 어떻게 남자를 존경하는지를 보았다.

재양육은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다.

사람들은 함께 배우는 것을 읽고 분석하고 서로 토론하면서 생각의 날을 버린다. 매주 읽을거리를 나누어 주는 일은 필수다. 우리는 성경 인물과 세상 인물의 전기를 읽었다. 성품 발견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가 발견한 점을 오랫동안 토론했다. 우리는 자신의 ‘영웅’을 택해 그의 성품과 영성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아낸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재양육은 영적 훈련이다. 우리는 서로 영적 훈련을 가르치고 받았다. 기도하는 법을 새로 배우고 성경의 가치를 새로이 인식하여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다. 석 달 정도 지나자 사람들은 서로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기도하며 도왔다.

재양육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 부부는 사람들을 차례로 불러 주말의 앞자 시간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다니며 우리의 대화도 듣고 교우들을 위한 기도를 경청하고 교우들의 물음에 답하기도 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화하고, 모임을 계획하고, 일정을 관리하는지 보여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가장 명석한 사람도, 정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리더로서 사생활을 공개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재양육은 칭찬과 꾸중을 아끼지 않는다.

정직하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우리 부부를 빼닮은 복제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 개인의 고유한 개성과 영적 은사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발견하는 모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이웃’ 전체에 의해 재양육을 받는 사람은 복제인간이 될 수 없다.

재양육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역이다. 나는 서서히 일대일 제자 양육보

다 모둠 제자 양육이 더 낫다는 확신이 들었다. 몇몇 사람에 따르면 예수는 결코 제자를 일대일로 양육하지 않았다. 시몬 베드로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도 여러 사람과 함께였다. 모둠 제자 양육은 리더의 언행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더한다.

나는 아름다운 예배 모임에서 기쁨과 열정의 찬양을 하면서도 짜임새 있고 활력 넘치는 예배만이 훌륭한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되새겼다. 교회는 일대일로 또 모둠으로 교우를 세우는 녹록치 않은 일 즉 그리스도를 빼닮는 재단생과 재양육을 해야 한다.

의 삶이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사건은 그저 이해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그 말씀대로 주님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만민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님의 부활사건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요, 그러한 성도의 삶에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인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 교원들을 위한 원격 연수용 인성교육 강의를 촬영했다. 강화를 듣기 위해 전국에서 오신 유, 초, 중, 고 선생님들의 관심과 열정은 대단했다. 실로 지난해 12월 29일에 제정된 인성교육 진흥법의 위력을 실감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성적과 입시에 무게중심을 두다보니 아무래도 인성교육을 등한시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는 온갖 사건사고들로 그 대가를 치르느라 고통을 당해야 했다. 누구나 부러워할 학력을 갖춘 판사가 사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욕설, 막말에 공직자의 윤리까지 저버리는 인터넷 댓글 달기로 충격을 안겨주는가 하면, 또 다른 고학력자인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하고, 유명대학의 교수조차 제자를 성희롱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청문회에서는 언제나 도덕적인 결함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성적, 하별, 부가치치로 둔갑해 버린 오늘의 현실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내리든 그 뿌리는 교육의 문제로 귀결되게 마련이다. 인성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인간 내면의 성품에 대해서는 온전한 가치매김이 없었던 까닭이다. 성적만 높이면 자연스럽게 좋은 성품이 뒤따를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서 좀 더 좋은 스펙을 쌓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성품을 배우고 다듬을 기회를 박탈한 셈이다. 실제로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으로 유명한 로렌스 콜버그의 경우 인지발달이 도덕적 인간을 보장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의 이론은 인간의 도덕성을 지나치게 인지발달에 치중했다는 한계점을 지적받고 있다. 미국인성교육의 선구자 토마스 리코나는 이런 비판을 이끄는 학자인데 그는 도덕 발달이론이 인지발달에만 초점을 두어 개인이 속한 사회 혹은 집단에서 합의한 ‘올바른 가치’를 도외시 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도덕적 성품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높은 인지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권력적 강요가 있을 때 도덕적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 또한 인지 능력과 도덕성이 비례한다는 콜버그 이론의 한계를 보여준다.

성품이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다. 한 사람의 생각뿐 아니라 감정과 행동까지 변화시키려면 인지발달 교육을 넘어 인간의 본성을 자극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감정과 행동을 가르치고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를 입증한 연구가 있는데 1988년 올리너 부부가 발표한 ‘이타적 인성 연구’는 유태인 학살이라는 위급한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유태인을 구조하는데 힘쓰는 406명과 방임했던 126명의 차이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밝혀냈다. 구조자와 방임자는 ‘규범 중심적 동기’ 즉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의 도덕적 규범을 지키려는 동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동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규범 중심적 동기는 어릴 적부터 부모와 교사로부터 도덕적 규범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에게 발달되어 있다. 이는 부모와 교사의 도덕적 가르침에서 올바른 행동에 대한 동기가 형성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것은 규범 중심적 동기를 유발하는 인성교육이 지금 우리 사회에 왜 필요한지를 잘 말해준다.

그러므로 부모와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행동을 선택하도록 가르침으로써 선한 규범을 지키려는 동기를 강화시키는 교육을 서둘러야 한다. 특히 성공적인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현대사회에 만연해있는 포스트모더니즘 가치관 곧 ‘절대 진리와 선은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의 됬됨이에 대한 절대 진리가 없다면 대체 어떤 인성을 가르쳐야 하는가? 절대 진리에 입각한 선한 덕목들이 인성교육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레야만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을 바로세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생각과 말, 행동을 선택하는 ‘좋은 성품’을 길러줄 수 있다.

푸/른/초/장

〈4면으로 계속〉
테러분자들은 기독교 기도모임을 진행되던 장소를 대상으로 계획적으로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폭탄을 터트리고 기숙사에 있던 학생과 직원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으며, 특히 그들은 대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종교가 무엇이나 묻고는 기독교라고 답한 학생들은 무조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통의 사건 가운

데서도 우리를 감동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참 나이의 젊은 대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한결같이 기독교인임을 고백하며 총탄에 맞아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분명한 신앙관과 내세관 그리고 부활과 영생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인생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삶이 있음을 알기에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천국

에서 영원히 살게 됨은 물론 순교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로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일주일동안 지치고 힘든 인생살이에 대한 위로나 격려나 받기 위해 교회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사건이 자신의 삶에 믿어짐이 없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

의 삶이 인도함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5년 5월 1일(금) ~ 12일(화)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gstcenter98@gmail.com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1~13일 (함동동인천노회) 남부시찰 재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현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25일 동춘교회(윤석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5일 충신대학교 성령수련회(김지연총장) 9~11일 (함동)태백시찰 연합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규원대학교, 대학원 제물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화령교회(이재욱목사)	1~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27일 하늘비전교회(노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5~17일 은양감리교회(노광현목사) 21일 예우림교회(류병희목사) 25~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천마산기도원(육광석목사)	3~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12일 나사렛성결교단 연합성회 (장소: 나사렛대학교) 17~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장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1~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RCA뉴욕한인교협 연합부흥성회 마지막날 타민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오른쪽부터 나영에 목사, 클라라 우드슨 목사, 이재봉 목사와 학생들.

“알곡의 축복” ...타민족에 장학금 수여 RCA 뉴욕한인교협 춘계연합부흥성회

RCA 대뉴욕한인교협(회장 이재봉 목사)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2015 춘계 연합부흥성회를 가졌다. “알곡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박재열 목사(서울 동선교회 담임)를 강사로 한 성회는 마지막 날에 타민족



어린이전도협회 주최 VBS &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에서 강사로나선 스테파니 포터 선생이 강의하고 있다

‘예배 찬양과 율동’ , 제자훈련, 인형극... 어린이전도협 VBS&주일학교 교사컨퍼런스

어린이전도협회(대표 여병현 목사)는 VBS &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11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세계야가페선교교회(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여병현牧사는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점점 크게 들려오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제3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대해 KFAM종교자문위원인 고태형 목사가 설명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위기, 교회의 역할’ 주제 한인가정상담소 제3회 목회자 컨퍼런스 개최

한인가정상담소(KFAM.소장 카니정조)가 7일 오전 KFAM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달 4일(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타운 소재 가든스위 호텔에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제 3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미주 한인들의 약 71%가 교회에 출석한다는 통계를

바탕에 둔 것이다. 가정상담소 측은 “한인 대다수가 교회를 통해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는다”며 “따라서 한인들과 가장 접촉이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 가정 폭력의 심각성과 예방법을 전하기 위해 컨퍼런스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KFAM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서철원 목사는 “고된 이민생활로 인한 각종 스트레스가 한인들에게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만이 가정폭력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박재열 목사는 첫날 “확실한 시작”(고후5:17-19), 둘째날 “먼저 주를 기쁘시게”(고후5:8-10), 셋째날 “확실한 은혜의 시작”(사6:1-6)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성회는 첫날 사회는 이재봉 목사, 둘째 날은 조대형 목사, 셋째 날은 나영에 목사가 맡았으며 경배와 찬양은 신광교회, 여린양개혁장로교회, 큐가든성신교회 찬양팀이, 말씀 전 찬양은 충신교회, 신광교회, 동산교회 찬양대가 담당했다. 축도는 김종덕 목사, 이풍삼 목사, 신성능 목사가 맡았다.

한편 셋째 날 장학금은 백인, 히스패닉, 흑인 3명의 학생들에게 수여됐으며 클라라 우드슨 목사가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지혜를 가지라”는 짙막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유원정 기자〉

더더욱 주님을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목사는 “복음을 전하다보면 깨닫게 되는 것은 나이가 어릴수록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어린시기를 놓치면 결국 세계복음화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좁아지게 될 것이다. 이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세상문화와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등에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올무를 놓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열리는 컨퍼런스는 매우 중요하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 교회 주일학교가 더욱 활성화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교회학교 예배 찬양과 율동’,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성경적 가르침, ‘소그룹을 새롭게 리모델!’, ‘창조과학을 통해 배우는 천지창조’, ‘어린이 제자훈련 7주 과정’, ‘2015 VBS찬양과 율동’, ‘VBS 성경 크래프트 아이디어’, ‘교회학교/단기선교를 위한 인형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해결책 등 도움을 줄 수 있는곳이 교회다. 이번 컨퍼런스는 가정폭력이라는 커뮤니티 이슈를 KFAM과 커뮤니티 그리고 교회가 함께 예방, 근절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FAM 종교자문위원인 고태형 목사(선한목자장로교회)는 “목회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상담요청 중 가정폭력에 대한 것은 가정의 수치심과 연결돼 있어서인지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학교 시절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기법 등을 배우지 못했다. 따라서 가정문제에 대한 상담요청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번 컨퍼런스가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전 베델한인교회 담임이자 가정사역을 오랫동안 해온 것으로 알려진 손인식 목사 와 LA법률보조제단의 조연 리 변호사, LA시 검사 등 법률 자문패널과 사회복지 전문가인 캄스테이트 LA의 이시연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한다.

행사는 블루윌드 재단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간단한 식사도 제공된다.

▲문의: (213)235-4848 김아림 (박준호 기자)

필라 뉴비전교회 첫 세례식

필라델피아 뉴비전교회(담임 채왕규 목사)는 지난 5일 부활주일에 개척 후 첫 세례의식을 베풀었다. 담임 채왕규 목사는 뉴비전청소년커뮤니티센터(NVYCC) 대표로 마약

중독자나 감옥을 출소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사역해왔으며 이번 세례자들도 이들 중 채 목사는 “필라 지역 청소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NVYCC가 마약에 빠진

살롯장로교회 남전도회 헌신예배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 남전도회(회장 조동식 장로) 헌신예배가 3월 29일 드려졌다. 금년 들어 계획과 비전으로 힘있게 전진하고 있는 남전도회는 회원들의 영성을 점검하고 헌신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전 담임 이희운 목사를 강사로 초청했다.

2015년 남전도회 행사는 △새교우 환영회 △헌신예배 △야나 사람의 날 △체육대회(탁구, 볼링, 골프 등), △어려운 이웃사랑/구제와 나눔 사역 △등산 겸 단풍놀이 △사과농장 방문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춘계 대청소날인 ‘교회 사랑의 날’ 행사와 춘계 야외예배, 춘계 대

정소, 가을 야외예배, 성탄절 가족찬양대회, 연말 전교우 친교 등 교회 행사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남전도회는 △사제 선교사 후원 △선교비 발송 및 기도 후원 △각 나라언어별 전도지를 준비해 회원 각 사업장에서의 전도 △연중 수시 노방 전도의 날을 운영 계획 중이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크리스천 법률칼럼

(H-1B 배우자) H-4 노동허가

안타깝게도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 (H-1B)의 배우자(H-4)는 취업이민청원(I-140)을 신청한 뒤에도 영주권 신청(I-485)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노동허가증을 신청할 수 없어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H-1B로 일하는 가장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상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는 5월 26일부터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H-1B)의 배우자(H-4)도 노동허가신청(I-765)을 접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어, 미국 국외 측면에서나 또한 해당 H-4 소지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노동허가 신청서(I-765, 380달러)
-배우자인 H-1B 소지자의 I-140 승인서 또는 체류 연장 서류
-현재 H-4비자 신분 증명 서류

이번 규정 변경에 H-1B 소지자의 자녀들은 여전히 빠져 있어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아 해도 자녀들의 취업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이번 규정 변경으로 시행 첫해에만 17만 명이 넘는 해당 소지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4 신분이어서 커리어를 포기해야 했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에 해당하는 H-4 소지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취업허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소지자들이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정식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과의 상세한 상담으로 규정에 맞는 정확한 서류접수를 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427-9750

자격조건

-영주권 신청으로 취업이민청원(I-140)이 승인된 H-1B 소지자의 배우자

-H-1B 최대 유효기간 6년이 지났지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 받은 H-1B 소지자의 배우자

절차와 준비서류



뉴욕전도협의회가 주최한 지역교회 살리기 전도세미나를 마치고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교회부흥 반드시 된다” 주제 뉴욕전도협, 지역교회 살리기 전도세미나

뉴욕전도협의회의(회장 오태환 목사)가 주최한 지역교회 살리기 전도세미나가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뉴욕만나교회에서 열렸다. 회장 오태환 목사는 “지역교회에 연합해 부흥할 수 있는 특별대안으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특별히 작은교회 살리기 운동을 하시는 박재열 목사의 강의를 통해 많은 도움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작은교회살리기운동본부 대표인 강사 박재열 목사(동선교회 담임, 예장대신 전 총회장)는 “교회 부흥 반드시 된다”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을 펼쳤다.

성화장로교회에서 열린 제1회 찬양대원을 찾아가는 지역 열린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감격의 찬양, 생활속 찬양, 준비된 찬양... 제1회 찬양대원을 찾아가는 지역 열린 세미나

제1회 찬양대원을 찾아가는 지역 열린 세미나가 12일 오후 5시 성화장로교회(담임 강영석 목사)에서 전현미 전 대흥장로교회 지휘자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열렸다.

전현미 지휘자는 “찬양은 구원받은 기쁨을 표현하는 감격의 찬양, 다윗의 찬양처럼 생활 속에서의 찬양, 그리고 역대상 25장 7절에 기록된 레위인 중 찬송하기를 배워 의숙한 자들을 선택한 것처럼 준비된 찬양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 지휘자는 “찬양대원들에게 있어서 발성연습은 필수적이다,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 스트레칭과 목을 푸는 일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찬양대 연습실에 들어오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망소사이터티에서 열린 무료법률서비스에서 서동성 변호사가 내담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소망소사이터티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두 번째 서비스 5월 4일 개최

소망소사이터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주최한 첫 번째 무료 법률상담서비스가 지난 6일 열렸다.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법적인 부분을 상담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한인사회에 도움을

지니 정 변호사

박 목사는 “교회가 다른 교회 교인들을 모으려하지 말고 교회 박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영혼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사 14:24).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다. 핑계대지 말고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면 내가 함께 있겠다고 하셨다며 묵회, 전도, 심방, 양육 등 주의 일을 하라”고 말하고 “성령은 구원 받고 전도하라고 오신 것이다. 은사, 능력, 권세가 총만한 것은 전도 잘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목사는 “전도와 선교는 지역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부흥회, 목회자 양산 등 부흥의 조건이 충분하고, 한국인은 종교심이 많고, 단일민족이며, 목회자를 잘 섬기는 특성을 잘 살려 행18:9, 10절의 말씀처럼 긍정적인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원정 기자〉

전 지휘자는 “찬양대 연습을 할 때 지휘자가 연습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자신의 파트연습이 아니라 동료대원들과의 집단은 연습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또한 음식물을 연습실에 반입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다만 물은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몸은 약하다. 찬양할 때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 다리를 꼬고 앉아서 찬양하면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할 때 좋은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참석자들이 ‘작은 불꽃 하나가’와 ‘내 영혼아’를 함께 부른 뒤 신상원 목사(빌립보교회 담임)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제2회 사우스베이 지역 열린세미나는 5월중에 열리게 되며 오렌지카운티 지역 세미나는 오는 7월 12일 오후 6시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담임 림학준 목사)에서 열리게 된다.

▲문의: 전현미 지휘자 (310)381-9835, hchon@ucla.edu (박준호 기자)

주기 위해 준비한 것. 유산 상속, 행사법,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다뤄진 상담 서비스는 그동안 어렵게 관리하며 모은 재산과 집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상속하는 내용, 개인 상해보상 청구소송을 통해 법적인 부분으로 도움을 구하는 내용 등 서동성 변호사의 오래된 노하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상담자들을 격려했다.

소망소사이터티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린다. 두 번째 서비스는 5월 4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터티)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여름학교 학생모집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여름학교 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이며 각 학년별 새 커리큘럼에 맞춰 지도한다. 9학년부터는 AT, SAT, SATII를 체계적 단계별로 지도한다. 수업시간은 K-6학년은 월-금 오전 9시-오후 3시 7학년-12학년은 월-목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연장반은 월-금 오후 3시-6시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조기등록(4월 28일)하면 디스카운트가 있다. www.kapcc.org ▲문의: (718)886-4646, 4040

뉴욕원로목사회 4월 정기 월례회

뉴욕원로목사회(회장 홍상설 목사) 4월 정기 월례회가 4월 16일(목) 오전 11시 뉴욕한인제일교회(담임 박효성 목사)에서 열린다. 당일 노던 156가 H-마트 주차장에서 9시45분 교회 밴 2대가 출발한다. 특별히 4월 월례회에서는 예방의학 이동검진센터(소장 이순중)가 제공하는 심장병 및 뇌졸중 예방에 대한 강의와 검사가 있게 된다. ▲문의: (914)332-7640

뉴저지북미원주민선교회 헌신예배

뉴저지북미원주민선교회(회장 김학룡 목사) 헌신예배가 4월 19일(주) 오후 5시30분 임마누엘장로교회(담임 우종현 목사)에서 열린다. 2015년 뉴저지 북미원주민선교 일정은 8월 2일(주)-8일(토), 위스콘신(LCO, St. Croix), 엡스테이트 뉴욕(Akwesasne)이며 참가비는 450달러(Sibling Discount \$100.00). 6월 7일부터 8주간 선교훈련이 있으며 8월 2일 파송예배를 드린다. ▲문의: (908)217-6625, (215)966-2061

뉴욕목회자 4차 성경세미나

뉴욕지구목회자성경연구원이 주최하는 뉴욕목회자 4차 성경세미나가 5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오전 10시-오후 5시 뉴욕여린양교회(담임 김수태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문화원 목사(미주 목성연 대표)이며 주제는 “창세기”다. 참가대상은 목사, 전도사, 사모. ▲문의: (718)899-8309

뉴욕기독교방송 합창단 예배

뉴욕기독교방송국(CBSN, 사장 문석진 목사) 합창단 예배가 4월 21일(화) 오후 8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열린다. 기독교뉴스와 자매회사인 인터넷방송 CBSN은 최근 개국했다. ▲문의: (718)702-5688, (347)538-1587

“주님 다시 사셨네!” 부활의 주님 찬양
뉴욕 29개, 뉴저지 16개 지역에서 부활절새벽연합예배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과 뉴저지 교협(회장 이병준 목사)을 중심으로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 드리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가 지난 5일 새벽 6시를 기해 각 지역에서 드려졌다. 뉴욕은 맨해튼부터 롱아일랜드까지 29개 지역, 뉴저지는 포트리부터 중부뉴저지와 북부뉴저지까지 총 14개 지역에서 일제히 드렸다. 또 코네티컷교협(회장 김정환 목사)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뉘어 열렸다.

뉴욕교협은 매해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를 위해 수차례의 준비기도회를 가졌으나 올해는 건물 이전 등 행사가 겹쳐 기도회 없이 박마이를 목사님을 준비위원장으로 지난 해보다 4개 지역이 늘어난 29개 지역에서 열렸다.

플러싱 7지역은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열렸다. 예배는 함성은 목사(뉴욕선민교회) 인도로 기도 마조운 목사(뉴욕침례교회), 찬양 뉴욕선민교회 찬양대, 말씀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 헌금송 여목협중앙단, 헌금기도 김정숙 목사(뉴욕즐거움교회), 광고 이은수 목사(큰샘교회), 축도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의 순서로 진행했다.

유상열 목사는 “부활의 의미”(고전15:15-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부활은 기독교복음의 핵심”이라며, “부활의 의미는 첫째,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기쁨과영광교회에서 드린 플러싱 7지역 새벽연합예배에서 유상열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옮겨진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기 바란다. 둘째,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다, 셋째, 영생의 보증이다 넷째, 재림과 천국에 대한 약속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지 않고 믿는 우리들은 이미 복 받은 자들로, 부활의 주님을 이웃과 온 세상에 전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프레쉬메도우 지역 예배는 뉴욕 늘기쁨교회(담임 김홍석 목사)에서 열려, 인도 한석진 목사(한길선교회), 말씀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 헌금송 여목협중앙단, 헌금기도 김정숙 목사(뉴욕즐거움교회), 광고 이은수 목사(큰샘교회), 축도 김영철 목사(순복음중앙교회)의 순서로 진행했다.

신석환 목사는 “부활신앙을 위하여”(요5:24-2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 신기루일 뿐이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 대전제대

야 한다. 낮은 이 땅에 찾아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지라. 시공간을 초월해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만나라”고 말했다.

플러싱 10, 11지역은 대한교회(담임 김전 목사)에서 박태규 목사(새함장로교회) 인도로 김진선 장로(대한교회) 기도, 찬양 대한교회 찬양대, 조부호 목사(한누리교회) 설교, 김전 목사(대한교회) 축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부호 목사는 “부활, 그 위대한 약속”(고전15:12-2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확신하신 사건”이라며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 담대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2년 4학기제 커리큘럼 강화”

뉴욕전도대학교 2015년도 봄학기 개강예배

뉴욕전도대학교(학장 허윤준 목사)가 31일 오전 10시30분 뉴욕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2015년도 봄학기 개강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비전과 함께 났했다.

개강예배는 박현영 목사의 인도로 이재봉 목사 기도, 뉴호프찬양단-김정선 사모 특송, 김영환 목사 설교, 손소혜 집사 봉헌찬송, 안승백 목사 봉헌기도, 김수태 목사 권면의 말씀, 허윤준 목사 학장인사, 박치숙 전도사 광고, 오태환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 식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학장 허윤준 목사는 2015학년도 계획과 관련, “학기를 2년제 4학기제 하고 커리큘럼과 전도훈련을 강화하도록 하며 신앙에 유익한 행사와 특강을 1년에 2-3차례 열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좋은 강사 섭외와 70여 명의 졸업생 등문들의 결속, 재학생들의 전도실습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희 목사 수상
엘리스아일랜드상



김승희 목사(뉴욕 초대 교회 담임·사진)가 제29회 엘리스아일랜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인 목회자로서는 처음으로 수상자로 선정된 김승희 목사는 지난 회기 뉴욕교협 회장을 역임하면서 한인 목회자들의 성직순례 후원과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 노력의 공로가 인정돼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스아일랜드상은 미국사회 및 이민사회 발전에 공헌한 지도자나 이민자에게 주는 메달로 역대 수상자 중에는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로널드 레이건, 지미 카터 등 6명의 대통령들과 힐러리 클린턴, 토니 블러어, 헨리 키신저, 무하마드 알리 등이 이 상을 받았으며 비디오티티스트 고 백남준 씨도 이 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이 상을 받은 한인 수상자로는 김승희 목사 외에 김영길 베델인더스트리스 회장, 케빈 김 뉴욕주 주류국 커미셔너, 폴 진 3K소프트웨어USA 대표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9일 맨해튼 엘리스아일랜드 역사박물관에서 있게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3000명 참석·헌금 2만여 달러

뉴욕교협 부활절새벽연합예배 평가회

뉴욕교협이 주최한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평가회가 지난 6일 오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20개 지역 준비위원장들이 참석해 연합예배 경과 및 결과를 보고했다.

회장 이재덕 목사는 “할렐루야 대회와 부활절연합예배가 약해지면 뉴욕교협이 약해진다고 평가된다. 이번 부활절연합예배에 수고해 주신 준비위원장들에게 감사한다”고 말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연합”이라며 서로 격려의 박수를 보내자고 말했다.

박마이를 준비위원장의 기도후 진행된 평가회에서는 지역별 상황보고와 참석인원, 헌금액 등이 발표됐다. 지역준비위원장들은 △각 교

회에 연락이 안된다 △예배 참석율이 저조하다 △지역분배가 예년과 달랐다 △장소제공 교회들이 성심껏 친교준비를 했다 등의 평가를 했다. 또 전체가 한꺼번에 드리는 연합예배도 고려해보자는 의견도 대두됐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맨해튼과 롱아일랜드1 지역을 제외한 27개 지역에서 3009명이 참석했으며 헌금 총액은 19,357달러(3개 지역 미도착)로 집계됐다.

뉴저지교협은 올해 800여 명이 참석했으며 7,082달러가 헌금액 경비를 제외한 5천 달러를 지역 한인 단체 5곳에 후원금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뉴욕전도대학교 2015년도 봄학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했다.



뉴욕지역 부활절연합예배 평가회를 마치고 임원 및 준비위원장들이 기념 촬영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마니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 (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성경: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361-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moakyang.org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1757, Flushing NY 11358 chungkitaef@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아 예배: 오전 10:45 수요 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Kung),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och.com	뉴욕순복음대니얼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584-5780, Fax: (848)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www.nyant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아 예배: 오후 1:30 최고성경강화: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hurch.org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주일성경공부: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3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창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us.org Tel: (516)333-1757, Fax: (516)746-4084 18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 (718)482-7788, Cell: (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페인어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좋은목자교회 담임목사: 김신영 주일예배: 오후 2:00 영아예배: 오후 2:00 목요찬양예배: 오후 8:00 최고성경강화: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성경공부: 오후 8:30 O/T영아: 오전 9:30(화) Tel: (516)584-4088, www.joungmokchachurch.org 1 West Hill Court Huntington Station, NY11746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apc.org
한마음 Wesley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화: 오후 7:00 최고성경강화: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www.pccw.org E-mail: hanmin@hanmail.net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4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r,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선교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국상 주일모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부기도회: 아침 7:40 유. 주. 중. 공동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권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사제나 신부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min@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성경강화: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강화: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waianhawaii.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함께 모여 부활의 아침을 찬양!

부활절연합새벽예배 남가주 전역서 일제히 열려

남가주지역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지난 5일 새벽 OC, 사우스베이 등 11개 지역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 오렌지카운티 지역은 오전 5시15분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 OC목사회(회장 객재필 목사),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 집사), OC원로목사회(회장 최승구 목사), OC원로성직자회(회장 한영수 목사), OC여성목사회(회장 이선자 목사), OC장로협의회(회장 김종대 장로) 공동주최로 열렸다.

김기동 목사(OC교회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객재필 목사(OC목사회 회장)이 기도를, 윤우경 집사(OC평신도연합회 회장)이 성경봉독을 그리고 은혜한인교회 할렐루야성가대(지휘 객광명 집사)가 찬양했다.

이어 한기홍 목사(미기총 회장)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자’(막 16: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신비한 사건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은 사건과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라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부활은 첫 번째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부활, 두 번째 약의 권세로부터의 승리, 세 번째 인생의 모든 무덤으로부터의 승리이다. 또한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



남가주지역 부활절 연합새벽예배가 4월5일 새벽에 남가주지역에서 일제히 열렸다. 사진위는 OC지역 연합예배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 가운데는 사우스베이지역에서 열린 연합예배에서 찬양하고 있는 사우스베이교회연합성가대, 그리고 사진 아래는 빅토밸리지의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에서 찬양하고 있는 빅토밸리 한인 목사회 찬양대 모습

나눔에서 부활의 평강으로 은혜주 시길 원하신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픔과 고통, 그리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모인 헌금은 전액 타민족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라면 보내기’에 사용된다. 헌금송은 과테말라인들이 출석하는 브니엘교회(담임 이반 고즈먼 목사)의 브니엘 중창단이 맡았다. 기도콘서트 시간에는 민승기 목사(OC교회 수석부회장)가 미국과 한국의 영적회복을 위해, 제프

현 목사(남가주사랑의교회 EM)가 ‘다음세대의 교회정착과 부흥을 위해’, 이호우 목사(OC교회 영성부회장)가 ‘한국의 정치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이반 고즈먼 목사가 ‘타민족 교회부흥과 세계복음화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각각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노창수 목사(남가주 사랑의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 사우스베이 지역에 열린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는 남가주살렘교회(담임 김준식 목사)에서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우스베이목사회(회장 김현수 목사) 주최로 오전 5시30분에 열렸다.

이황영 목사(남가주기쁨의교회/사우스베이목사회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김병용 목사(성서장로교회)가 기도하고 사우스베이교회연합성가대가 찬양했다. 이날 설교는 김현수 목사(사우스베이목사회 회장)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눅 24장:1-12)’라는 제목으로 했다. 김 목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을 남기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연례행사처럼 맞이하는 기념일을 넘어 365일을 기쁨으로 맞이하여야 한다. 성도들은 항상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삼진 목사, 김관중 목사, 윤 목사가 등단, 사우스베이 지역 복음화와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김준식 목사(살렘교회)의 축도를 끝으로 제31회 사우스베이 지역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순서를 모두 마쳤다.

◇ 빅토밸리 한인목사회(회장 백석영 목사) 주최로 열린 빅토밸리 지역 부활절 새벽연합예배는 오전 5시 0분 새생명한인교회(담임 김송국 목사)에서 열렸다.

고승경 목사(헬렌데일한인교회) 사회로 열린 예배는 김성일 목사(빅토빌예수마음교회)가 대표 기도를, 장진기 목사(성령장로교회)가 성경봉독했으며 빅토밸리 한인목사회 찬양대가 특별 찬양했다. 이어 우정은 목사(열린문기도원)가 ‘부활의 신앙’(골3:1-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송국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오렌지카운티 영적대각성 전도집회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가 주최하는 OC영적대각성 전도집회가 ‘디아스포라(이민)교회의 영광을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17일(금)부터 19일(주)까지 개최된다. 집회강사는 이신용 목사(신길교회 담임, 기독교대만성경교회총회장, 한국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이며 일정은 17일(금) 오후 7시30분 은혜한인교회(한기홍 목사), 18일(토) 오후 7시 오렌지중앙성경교회(이경원 목사), 19일 오후 4시30분 나침반교회(민경엽 목사)다.

▲문의: 은혜한인교회(714)446-6200, OC중앙성경교회(714)891-2370, 나침반교회(562)691-0691

은혜의강교회 교회이전 감사음악예배

은혜의강교회(담임 이상훈 목사)는 설립 5주년 및 교회이전 감사음악예배를 19일(주) 오후 4시30분에 갖는다. 감사음악예배는 소프라노 조현주, 우희경, 테너 오위영, 그리고 찬양사역자 이정열 자매가 출연한다. 은혜의강교회의 새 주소는 1407 Cranshaw Blvd, #101, Torrance, CA.

▲문의: (310)808-6858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취임예배

파우전옥스에 위치한 새생명교회(담임 승광철 목사 950 Warwick Ave)는 승광철 담임목사 취임예배를 19일(주) 오후 5시에 개최한다.

▲문의: (661)618-9392

LA 온하늘교회 설립 3주년 기념예배 및 음악회

LA 온하늘교회(담임 연제선 목사 1540 S Saint Andrews Place)는 설립 3주년을 맞아 기념예배 및 음악회를 26일(주) 오후 4시에 갖는다.

▲문의: (818)983-9024

가정폭력 전문상담자 40시간 기본교육 실시

남가주신학대학, 롬버스, 와이낫 재단 주최

남가주신학대학교(Southern California Seminary) 총장 게리 콕스 박사)와 롬버스(Rhombus) 소강 줄리 헤이트 박사), 그리고 와이낫 파운데이션이 함께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가정폭력 전문상담자 워크샵이 13일(월)부터 17일(금)까지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은혜관에서 열렸다.

첫날 오전 8시에 ‘Domestic Violence in a Nutshell’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는 론 로위 박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론 박사는 “1970년대가 되기 전까지는 여성폭력에 대한 법이 없었다. 하지만 70년대에 들어서서 여성폭력을 막는 운동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폭력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었기에 가족들이 아동학대라고 있어도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가정폭력에 대해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폭력을 막는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론 박사는 “지난 2008년에 불어 닥친 경제공황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 중에는 직업의 변화가 생겼다.

여성들을 위한 직종이 많이 생기게 됐다. 하지만 남성들을 위한 직종은 줄어들게 됐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위치한 중부지방과 동부지방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파산하게 됐다. 반면 여성들을 위한 사무직은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남성들이 일을 하며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감이 있는 사회다. 하지만 남성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가장으로서의 위신이 서지 못함을 느끼게 된다. 결국 그것이 가정문제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4년 미국에서는 여성폭력에 대한 법이 많이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감옥에 갇힌 남성들이 2008년 이후 석방되는데 그들을 위한 교육과 치료를 해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가정폭력 전문상담자가 되는 것도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 주제

주님의영광교회 세미나, 강사 김철민 장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청년들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라는 주제로 이성교제 세미나를 12일 오후 3시 본 교회 호프센터에서 김철민 장로(CEF 대표)가 강사로 초청된 가운데 개최했다.

김철민 장로는 “이성교제 및 결혼교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25세, 30세, 35세, 40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의 필요가 전부 다르다”며,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려본다면 폭풍속의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가정 속에 평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후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가정을 만드신 것이다. 청년들을 볼 때

이성에 대해 거절을 당한 것 때문에 자신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독신의 은사는 100만명중 한명정도 있을까 말까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장로는 “많은 청년들이 올바른 배우자를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배우자를 찾는 조건은 자기 자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또한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특별한 테크닉은 필요 없다. 하나님께 올바른 서서 하나님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갈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박준호 기자)



주님의영광교회에서 열린 이성교제 세미나에서 김철민 장로가 강의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에서 열린 남가주신학대학, 롬버스, 와이낫 주최 재단 가정폭력 전문상담자 40시간 기본교육에서 론위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세기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금), 오후 6:00(토) 영양예배: 오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org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wlscfca.org Tel: (323)913-1331,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www.ylcn.org Tel: (213)388-7101, (F) (213)388-658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www.mjc.org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org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후 6:30 EM. 대각부: 오후 5:30 주일학교: 오전 11:00 www.nachimb.org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등둔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dtc.org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토 일 예 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20 주일 2부 예배: 오전 9:20 주일 3부 예배: 오전 11:20 젊은 이 예배: 오후 1:20 영어권 (장소: KOC, 링컨대역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 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2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www.dmc.org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www.egkpc.org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도예배: 오전 9:30 3부 전도예배: 오전 11:00 4부 영양예배: 오후 12:3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www.dyc.org 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www.dmsc.org Tel: (213)559-7728 (전선 목사), Tel: (21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후 5:30(월-토) www.dreamchurch.org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www.mjyc.org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예배: 오전 9:45 수요: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jpc.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화-토) 오전 6:00(토) www.bsc.org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00(청년) 선영양예배: 오전 11:00 대각부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전 10:00(영양)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각부) 금요예배: 오후 7:30 www.fkc.org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www.smc.org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성호 주일 예 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30 www.yjc.org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침례회: 오후 7:00 www.irc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찬양)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인종찬양) 새벽 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가족회: 오후 5:55 24시간 기도 www.gracemc.org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www.gjc.org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종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 기도: 오전 5:30(월-금) 비즈니스 (비영리): 오전 6:30(토) 종, 고, 대, 찬양: 오전 7:50(토) www.samsungchurch.org Tel: (714)846-9289 Fax: (714)8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 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aconerstone.com Tel: (310)530-440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찬양부흥회: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광복 70년, 부활의 은혜로 통일·화해 이루게 하소서 한국교회, 전국서 일제히 부활절 예배

한국교회 성도들은 5일 일제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화해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 나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찬송가 160장 ‘무덤에 머물러’) 한국교회 성도들이 5일 일제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한복소리로 사랑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다. 한국교회는 부활의 기쁨을 경험한 제자들이 복음전파를 위해 세상으로 향했던 것처럼 생명과 평강의 복음을 소외되고 고난당한 이웃 등에게 전하기로 했다(요 20:21).

한국교회 40개 교단 대표와 성도들은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연세대 노천극장에서 열린 ‘2015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서도 힘쓰기로 했다.

부활절 아침 ‘해갈’의 기쁨을 선사한 단번에 내린 후 열린 예배는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의 집례로 진행됐다. 김중훈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전 감독은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에서 “먼저 화복케 하는 직분을 받았으나 그러지 못한 것을 고백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가 하나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백남선 예정합동 총회장은 ‘그리스도의 부활, 화해와 통일로!’라는

설교에서 “한반도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통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민족을 아픔 속에서 이끄는 빛”이라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 되어 하고 특히 성경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 되듯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용서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도 이어졌다. 천환(예정고려) 우종휴(예정합신) 이종복(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은 “남북이 서로 무기를 버리고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평화통일을 이루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

3부 ‘성찬’은 김철환 기독교한국루터회 총회장의 집례로 진행됐다. 4부 ‘세상으로 나아감’에선 손달익 예정통합 전 총회장이 ‘화해와 통일에 대한 비전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선언문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잊은 채 남북의 냉전체제 경쟁에 앞장섰음을 반성하고 올해가 평화통일시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신웅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 대표대회장은 “화해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서로 부둥켜안고 동과 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해 달라”면서 “우리 모두 생명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자”고 대회를사를 했다. 예배에는 양병희 한국교회연합 대표회

장, 황용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장, 황수원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축하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도 이날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한국교회 부활절 희망나눔 특별감사예배’를 드렸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돌보고 있는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소속 관계자와 다문화가정,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성도 등 650여명을 초청해 ‘나눔과 섬김’을 통한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주최 측은 이들 단체에 생필품이 담긴 ‘희망나눔 박스’ 2000개와 함께 지원·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영훈 한기총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된 지 130년 만에 선교대국의 대열에 선 한국교회는 예수의 부활로 얻은 희망과 축복을 땅 끝까지 전파할 책임이 있다”면서 “우리가 향한 땅 끝은 가난한 자, 소외당한 자, 고통과 외로움에 처한 자들이다. 이들을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설교는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낸 박종순(총신교회 원로) 목사가 전했다. 박 목사는 ‘내가 믿나이다’(요 20:24-29)를 제목으로 한 메시지를 통해 “우리 시대는 상처 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서럽고, 슬프고, 괴롭고,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며, 영적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부활신앙을 회복해 ‘할 수 있다’ ‘된다’ ‘가

능하다’라는 용어들이 키워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교회 덕분에 나라가 바로 서고, 이 시대가 행복하며, 살기 좋은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총 3부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성찬식과 함께 ‘대통령과 공직자’ ‘한국교회의 연합·일치’들을 위한 특별기도 순서도 마련됐다. 정의화 국회의장 등 정·관계 및 교계 인사들의 축사 등도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성규 한기총 증경 대표회장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광복과 분단 70년인 올해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화해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NCCK도 서울 용산구 소월로 중앙루터교회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활절새벽예배를 드렸다.

전국 주요 교회도 다양한 행사로 부활의 기쁨을 나눴다. 서울 명성교회(김삼환 목사)는 ‘오직 복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으며, 광림교회(김정석 목사)는 부활절 계란을 육군군사학교, 경찰대학, 국립경찰병원, 광림사랑의집 등에 나눠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했다.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는 부활절 예배 때 태신자작정 기도카드를 작성했으며, 오는 10월 새생명축제까지 전도에 힘쓰기로 했다.

부산 수영로교회(이규현 목사)와 인천 주안장로교회(주승중 목사), 광주 동명교회(이상복 목사), 대구 동부교회(김서복 목사),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목사)도 성찬식과 부활절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부활신앙을 되새겼다.

사람) 및 성도도 교육에 참여하게 해 정통 교리와 이단 대응책을 상세하게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단·사이비 세력의 실질적인 피해 당사자인 일반 성도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 이단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편 7개 교단 이대위원장은 이날 애장백석도 회일 교단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정백석 이 백석 교단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 이단·사이비 공동대처 교단은 8개로 늘어나게 된다. 다음달 15일 예정통합 총회본부에서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는 신흥 이단에 대한 범교단적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로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의 모티프들이 될 것을 약속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지난해 5월 26일 이종윤 목사, 이세종 장로 등 각계 원로들을 중심으로 창립됐다. 산하기관인 기독교운동 본부는 각 교단 평신도 지도자들과 함께 다음 달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검소한 혼례운동본부’를 발족한다. 오는 6월 30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정직한 기업 국민운동’ 출범대회를 열고 1000명의 발기인을 모집할 계획이다.

언해 천지일보와의 관련성을 표출했다”면서 “법원도 ‘천지일보가 신천지교의 기관지인 것으로 주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심판석 교회언론회 사무국장은 “천지일보는 그동안 신천지 관련 기사 1800개를 쏟아내며 반사회적 종교집단을 적극 옹호한 반면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퍼부어왔다”면서 “언론의 공정성, 정직성을 상실한 천지일보의 실체를 낱날이 드러내지 않으면 훗날 위장 불교 시민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같은 제2의 ‘한국교회 저격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에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치는 양들을 제물로 바쳤던 것이다. 솔로몬도 베들레헴에서 가져온 양들을 제물로 바쳤을 것이다.

제물을 바칠 때는 먼저 깨끗이 씻어야 한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양들을 끌고 왔기 때문에 많이 더럽혀졌을 것이다. 제물을 바치기 전에야 먼저 물로 씻는 정결예식을 행해야

“교회·학원가 침투 공동 저지” 7개 교단 이단대책위원장 성명, 홍보물 제작법적 대응 공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통합·고신·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는 6일 연합 성명서를 통해 이단에 대한 교단의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이들 교단은 이날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예정합동 총회회관에서 ‘7개 교단 이대위원장 연합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이단의 학원가 침투 저지, 이단을 알리기 위한 홍보 활성화, 법적 대응 공조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이단·사이비의 정통교회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각 교단이 다 함께 협력해 대응할 것’과 ‘학원복음화단체 및 학원 선교단체들과 연합해 학원가 이단 침투를 공동 대응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이단·사이비의 새로운 포교 전략과 사회활동, 위장교회 및 학원가 위장단체 명단 등을 알리는 서적과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교인을 미혹케 하는 활동을 사

“새로운 한국 국민운동 참여” 평신도지도자연합회 창립...기독교인 10대 약속 선언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산하 기독교운동본부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에서 ‘평신도지도자연합회 창립대회’를 가졌다.

연합회는 창립선언문에서 “세월호 참사 1주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우

리 기독교인들의 노력이 크게 미흡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국민운동이 이 나라 국가개조에 성공하려면 기독교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다시 한 번 기독교가 우리 민족의 희망이 돼야 한다”며 “평신도지도자연합회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상 속에서 지도력을 발휘함으로써 한국교회 평신도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 뉴스공급 중단” 한국교회언론회, 포털에 요청 공문 발송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4일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천지일보의 뉴스공급을 중단시켜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회언론회는 “천지일보의 목적이 반사회적 종교집단을 두둔하고 기독교 편향에 있는 만큼 포털사이트에서 뉴스 서비스 제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공문에서 “언론의 기본은 진실과 정직인데 특정 종교를 전파·보호하

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그 곳에 성막과 돛 제단이 있었기 때문이다(대하1:6; 대상16:39-40).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기 위해 양 1천 마리를 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는 흠 없는 양을 바쳐야 하는데, 흠 없는 양 1천 마리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당시 베들레헴에서는 양을 많이 쳤는데, 그 양들은 대부분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었다.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 성전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물로 바치는 양들은 흠이 없어야 했다. 먼 곳에서부터 양들을 끌고 오면, 오는 가운데 상처도 나고 더럽혀지고, 흠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

한기총 ‘이단해제’ 재심 7개 교단 동참 류광수·고 박윤식 목사 관련 교단들 검증위원 파송 결정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가 추진 중인 류광수·고 박윤식 목사의 이단해제에 대한 재심 검증에 7개 주요 교단이 동참하기로 했다. 한기총 분열 사태를 야기한 이단 문제가 해결돼 탈퇴 교단들이 다시 가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한기총 이단검증특별위원회(이단검증특위·위원장 오관석 목사)와 주요 교단에 따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통합·백석,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그교회) 등 7개 교단이 특위에 검증위원을 파송키로 했다.

지난달 중순 검증위원 파송 요청 공문을 보낸 9개 교단 중 예정고신과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등 2곳이 빠졌다. 구자우 예정고신 사무총장은 “교단마다 이단 규정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교회연합기관이 신학적인 사안을 다루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우리 교단 입장”이라고 불참 사유를 설명했다.

참여 교단 가운데 한기총 회원 교단은 2곳(기하성여의도순복음, 그교회)이며, 탈퇴 내지 비가입 교단은 4곳(예정합동·통합·백석, 기감), 행정보류 교단이 1곳(기침)이다. 이단검증특위 관계자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등 한국교회의 정통교단들이 전문위원을 파송키로 함께 따라 공신력 있는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며 “불참 교단에 대해서도 검증위원 파송 요청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7개 참여 교단에 따르면 서영석 협성대 교수(기감), 김호성 국제신학연구원장(기하성여의도순복음),

장계은 서울기독대 교수(그교회), 김형목 서울 성지교회 목사(기침), 장동민 백석대 교수(백석) 등이 검증위원으로 나선다. 예정합동·통합 등은 검증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검증은 주요 교단들의 정기총회가 열리는 오는 9월 이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검증 작업은 검증위원들의 1·2차 연구 및 내부 토론, 3차 공개 토론회에 이어 최종 보고서 작성·보고·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상세한 검증 로드맵은 오는 11일 열리는 이단검증특위 회의에서 논의된다. 이미 사망한 박 목사에 대한 검증 여부도 다룬다. 이단검증특위 관계자는 “사망한 자에 대한 검증이 실효가 있느냐 ‘신학적 문제이기 때문에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등 다양한 견해가 있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증위원을 파송한 교단들은 검증 작업에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홍정 예정통합 사무총장은 “한기총과 한교연의 통합을 위해서는 이단 문제 해결이 필수 선결과제”라며 “일치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단 문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승 예상백석 제1부총회장은 “한기총이 하나로 뭉치느냐, 깨지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며 검증 작업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기감 관계자는 “이영훈 대표회장이 한기총을 이끌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으려 하는 것 같다.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단검증특위는 11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교단의 재심검증 동참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 단교 각오하고 맞서야” 한교연, 일본 역사왜곡 규탄 성명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9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성명서를 내고 일본 역사 왜곡을 규탄한 뒤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교연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로 국민들은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다”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이 일본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영토를 마음껏 유린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교연은 “올해로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한지 50주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일본은 침략 야욕과 도발이 계속되는 한 양국 간의 미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소환 등 단교를 각오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우리 영토인 독도에 접안시설을 설치하는 것조차 일본 눈치를 본다면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2015 통곡기도회 기도행진’ 12일 서산제일교회서 개막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삼일대표 이종윤 목사)이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2015년 통곡기도회 기도행진’이 12일 오후 충남 서산제일교회(이구일 목사)에서 개막됐다.

‘북한과 통일을 위한 서산지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대회’라는 부제가 붙은 올해 첫 통곡기도회에서 손인식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 사무총장은 “분단 70주년, 이제는 통일이 임하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는 2015년 통곡기도회 기도행진, 이 기도의 불길에 함께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탈북민 강철호 새터교회 목사가 탈북 과정을 간증하고 “분단 70년인 올해가 진정 통일의 해가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 기도회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기도모임인 1981년 동독 라이프치히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를 기원하는 월요 기도회’와 미국 한인교회가 2004년 시작된 ‘통곡기도회’를 모델로 했다. 월요기도회는 9년간 촛불시위로 이어져 결국 베를린 장벽을 허

했다. 일천 마리의 양들을 다 어떻게 씻었을까? 이스라엘에 물이 귀한 것은 다 잘 아고 있다. 그런데 기브온은 한 우물이 있었다(사하 2:13). 지름이 9미터, 깊이가 45미터나 된다. 중동에서 가장 큰 우물로 알려져 있다. 나선형 계단을 타고 내려가 물을 길러오게 되어있으며, 주전 12세기경부터 있었다. 고

대에는 동네 크기가 우물 크기에 비례했다. 이만한 우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기브온이 상당히 큰 성읍이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우물이 있었기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메일: jinhllee1004@yahoo.com

mission 선교의 창 (29)

하나님의 킹덤을 향한 도전적 기도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세계 인구의 약1/3이 된다. 적지 않은 비율이다. 한데 그 수에 비해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의문이다. 아니 어떤 면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까지 하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교회 안에 이기주의, 분파주의, 세속주의가 깊이 들어와 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은 자기와 가정 그리고 지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우주적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도전하는 적그리스도와 세속에 함몰되어갈 수밖에 없다.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기자들의 간계로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한 것이다.

2. 유태인의 기도 전통
유태인은 42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랑하면서도 흠여짐을 면하며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들이 생존 비결은 무엇인가?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지구촌 어디에 있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공통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 회복이었다. 그들은 지금도 하루에 세 차례씩

4. 기독교인의 기도생활
우리 기독교는 복음 안에서 자유이다. 구태여 행위적으로 규례에 묶일 필요가 없다. 우리 주님께 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각자 믿음의 분량과 철학대로 신앙 활동을 하면 된다. 이것은 신앙의 대 원칙이다. 하지만 언약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기도생활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아니할 때 복음 안에서 자유는 방종으로 흐르기 쉽다.
인간은 본시 연약하며 육신의 소욕은 끝없이 편함을 추구한다.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며 눕고 싶고 누우면 잠들기 마련이다. 오늘 날

로 정한 시간에 기도운동을 펼쳐볼 필요가 있다. 이 때에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고통 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다.
아마도 밤 10시 10분간이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것 같다. 하루는 24시간이며 1440분에 해당된다. 10분이면 하루 중에서 10/1440=0.0069이다. 이는 우리 삶에서 1/100도 안 되는 시간이다. 주기도문의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정도의 시간은 누구나 낼 수 있을 것이다. 밤 10시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10분간만 두 손을 모으자. 그리고 함께 기도함주회를 통해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

선교 펄지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3월 마지막날이네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온두라스는 Semana Santa(고난주간)에 전 국민이 휴가주간으로 물놀이를 떠납니다. 산골마을 사람들도 주중에 가까운 호숫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들은 한 주간 시골마을을 다니며 예수영화를 상영하고자 합니다. 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풀들이 말라서 누렇게 되고, 길가의 꽃들은 먼지로 덧칠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시절이겠지요. Facebook에서 만나는 미국과 한국의 아름다운 봄꽃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흑한의 추운 겨울 눈 덮인 대지 위에 봄의 숨결은 대자연을 아름다운 한 폭의 수채화로 변하게 하지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요즈음 뿌에블로 비에호 목회자가 교통사고로 제가 매주 두 번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네요. 지난 14일에는 산후안에서 세례식을 집례했습니다. 몽케카



정한 시간에 지속적인 기도는 바위를 쪼개는 물방울과 같다.

만일 전 세계 크리스천이 같은 시간에 한 가지 기도제목으로 간구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알다시피 바닷물의 염기는 3%이다. 이 적은 비율의 염기가 대양을 정제하고 바다 생태계를 보존한다. 기독교인 비율은 그 10배가 넘는다. 생각해 볼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계선교를 위해 연합적 대오를 펼칠 것인가? 여러 방안이 있지만 가장 쉽고도 강력한 도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정한 시간에 한 기도제목으로 연합하여 부르짖어야 한다. 프리즘을 보라. 수많은 햇살이 그 곳을 통과하여 모아짐으로 종이를 태운다. 레이저 광선 역시 같은 이치이다. 빛이 하나로 합일되어 두꺼운 철판을 뚫는다. 우리가 합심하여 탄원하면 레이저광선만 못하랴!

1. 정한 시간 기도의 성경적 근거
시55:17, 단6:10에서 추론해보면 구약의 성도는 정규적인 기도시간이 하루에 세 번 있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으며(MK1:35) 또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셨다. 그 곳에 가신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였다(NK22:39-42).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제 구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라는 구절이 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의 기도관습에 익숙해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다. 다니엘 역시 습관을 따라 정한시간에 기도를 했다. 그는 포로 신분인 종리로서 막중한 일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어떤 경우에도 하루

기도를 한다. (1)아침기도(사하리트) (2)오후기도(민하) (3)저녁 혹은 밤기도(마아리브)이다. 그들은 신성한 기도시간을 위해 몸을 깨끗이 하고 옷을 단정히 입는다. 어떤 장소이건 청결해야 하며 사람을 자극하는 향내나 냄새가 나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슬람의 강성 원리
이슬람의 교세와 그 성장 속도는 가히 폭발적이다. 이들의 강성 원리 중 하나는 하루 5번씩 정한 기도를 한다는 것이다. 이 기도생활은 그들 국가와 민족 가운데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방향을 향해 지구촌의 모든 무슬림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다. 매일 때가 되면 다섯 번 기도시간을 알리는(adhan)아잔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진다. 그러면 성인 무슬림은 의무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 설사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행동을 멈추고 기도 품이라도 잡아야 한다. 길게 횡으로 늘어서 함께 절을 하며 기도하는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이들은 이슬람의 율법에 포로가 되어 있다. 누가 감히 이 기도문화에 역행할 수 있을까? 그 열심과 자세는 가상하나 한편으로 불쌍하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그들의 기도생활은 어떠한가? 위의 정통과 유태인이나 이슬람에 비교하면 한끄러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한국교회에는 새벽기도회가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다. 이는 한국교회 성장과 성도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만일 이것마저 없었다면 한국교회는 어땠을까? 인간이 율법이나 제도에 노예가 되는 것은 불행하다. 그러나 인간을 경성케 하며 발전적으로 지탱케 해준 제도라면 자기문화로 소화하는 것이 좋다. 우리 인간은 죄성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것을 거부할 때가 많다. 이때 기도시간이 도둑화되어있다면 습관을 따라 참석하게 되고 새롭게 소생하기가 쉽다. 아무튼 기도생활 문화가 없는 서구교회의 쇠락을 우리는 뵈어 보고 있지 않는가? 기도가 없는 곳에 성령충만도 없다.

5. 10-10 기도를 통한 선교적 도전
만일 지구촌의 모든 크리스천이 인종과 국가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한 시간에 한 가지 기도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까? 아마도 지옥문이 흔들릴 것이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애를 느끼며 성령의 진동하심을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구슬이 열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군대의 힘은 조직화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해보자.

맺는 말
세상이 요동치고 있다.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 4월4일에는 케냐 가르사 대학에서 148명의 무고한 학생들이 학살되었다. 그들 테러리스트들은 기독교인들만을 골라 사살했다. 많은 이들이 IS에 포로로 잡혀있으며 존엄한 인간들이 그들에 의해 계속 목이 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 압제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도처에서 고통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이 때에 우리 크리스천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진정 이웃에 대한 아픔이 있는가? 내 가족 내 교회가 아니기에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자아와 지역교회의 울타리를 깨고 나와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을 공동으로 대항해야 한다. 악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궤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과업이다. 그러기에 개별적이면서 전체적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킹덤을 향한 도전적 기도가 시급한 때이다. 10-10 Prayer Movement! 우선 가능한 것부터 시도해보지 않겠는가?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 새벽: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344-6446,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앵커리지영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벤엘교회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일):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8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엘파소영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일)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Fax: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일)
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대학청년부: 오후 10시 (한/영)
유지, 유년: 오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3부예배: 오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mc.org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주일오전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88(렉스쿨)
701 Scaleybank Road, / Onnell Church, NC 28209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미션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let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영일)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org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전예배: 오후 2:00
주일새벽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일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Tel: (303) 364-8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KoreanChurch.org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일)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Tacoma, WA 98509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미션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jpccseattle.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영일예배: 오전 11:00
영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80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www.kucc.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미션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www.jkpc.org



필리핀

올해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작년에는 건기 철에도 비가 종종 내려 나무들과 풀들이 푸릇푸릇하였는데 올해 여기 여름은 엘니뇨이고 비가 몇 달째 내리지 않아 풀들이 많이 말랐습니다. 땅의 풀이 녹색으로 푸르지 않고 누렇게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동네마다 제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많이 부족해서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씩 정전이 됩니다. 날씨가 많고 덥고 정전으로 좀 불편하지만 곧 있으면 한국에 간다는 생각에 올 여름이 덥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졸업식

3월 20일 아테네오고등학교 졸업식
현탁이(17살)가 잠보앙가 선교지에서 1998년에 태어나 한국 사람들과 거의 교제 없이 자라왔지만 영어와 한국어를 잘 하기에 감사할 뿐입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2013년 9월에 내전이 발생하여 두 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였고, 작년에는 결핵에 걸려 7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02년 안식년으로 한국에 갔을 때 현탁이는 5살이었고, 선교지로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서럽게 울 때가 었그제만 같은데 선교지에서 시간이 흘러 드디어 고등학교 졸업을 하였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슬람 반군들의 활동이 있는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는 현탁이가 마닐라의 대학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전라남도 목포나 진도처럼 외진 서남부 지역에서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잠보앙가에서 제일 좋은 아테네오대학에서 4학년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데 포기하고, 더 넓은 세상에 나가 공부하고 싶고,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고 합니다. 마닐라의 UST대학에 합격을 하였는데, UST대학은 아시아 최초의 대학으로 403년 되었습니다. 현탁이 반에서 현탁이란 마닐라의 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3월 24일 새희망초등학교 졸업식

저희가 림빠빠 무슬림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희망학교에서 제 2회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작년 제 1회 졸업생은 5명, 올해 제 2회 졸업생은 8명이 되었고 내년 3회 졸업생들은 더 많을 것입니다. 2010년 학교를 처음 시작할 때가 었그제 같은데 2회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갈수록 우리 학교에 대하여 주민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필리핀 문교부의 정식 수업을 하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무슬림 학생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3월 28일 베다니초등학교 졸업식

둘째 준탁이(13살)가 베다니초등학교를 졸업하였습니다. 현탁이가 4년 전에 졸업한 학교에서 동생 준탁이도 졸업을 하였습니다. 준탁이도 형이 공부한 아테네오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8월에 현탁이가 마닐라에 가서 공부를 하면 혼자 잠보앙가에 남게 될 텐데 늘 외롭지 않고,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잠보앙가 도시 요즘 상황

요즘 저희 부부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몇 주 전에는 마닐라의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그리고 저희 해외선교부로부터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니 가급적 빨리 한국으로 입국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잠보앙가 도시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경찰이 직접 학교로 찾아와 저희 부부에게 이슬람 반군들이 우리 부부를 납치하려는 정보가 있으니, 특별히 조



심하고 학교 방문을 당분간 자제하고 경찰 2명을 보내어 경호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월 23일 금요일 오후 3시 경에 잠보앙가 기완 마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폭탄이 터져 2명이 사망하고 52명이 다쳤습니다. 민다나오 섬에는 무슬림들이 자치적으로 지역을 이끌어가는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을 '방사모로'라고 부릅니다. 무슬림 자치구역은 12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잠보앙가 도시 남쪽의 섬들과 북쪽의 지역들이 모두 방사모로 지역에 속해 있지만 저희가 있는 잠보앙가 도시만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반군들이 잠보앙가 도시를 자치구역에 속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남자와 폭탄,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 주민투표를 통해 자치구역에 가입을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치구역에 허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도시가 혼란해져가고 있습니다. 만일 잠보앙가 도시가 방사모로에 속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선 이슬람의 율법인 샤리아 법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부정부패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곳 잠보앙가 도시가 무슬림들의 자치구역에 속

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안식년 계획

현탁이 대학교 입학에 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 마닐라로 4월 5일에 갑니다. 마닐라에서 며칠 머물다가 4월 15일에 한국으로 안식년 겸 선교지 피신 겸 방문해서 6월 3일에 필리핀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국에 가면 가족 건강 검사와 이제까지 후원해주신 분들을 만나 교제하고, 교회들을 방문해 선교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에 머무는 기간은 47일입니다. 이제까지 후원해주셨던 교회에 찾아가 선교보고를 해야 하고, 새로운 선교 모금도 해야 하는데 사실상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쉽지 않습니다. 선교지에 나온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좀 외지고, 외로운 사역지인데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까지 무사히 사역해 왔습니다. 이제까지의 선교 여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외진 선교지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현탁이와 준탁이에게 한국을 배우는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http://cafe.daum.net/tausugsarang
이메일: ohgongtak@hanmail.net
오정운 공운자 선교사

온두라스

(13면에서 계속)

헤수스 오토뇨에 있는 풀장에서 모두 즐겁고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전 12:1)는 말씀을 나누고 젊음의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였습니다. 미래 산골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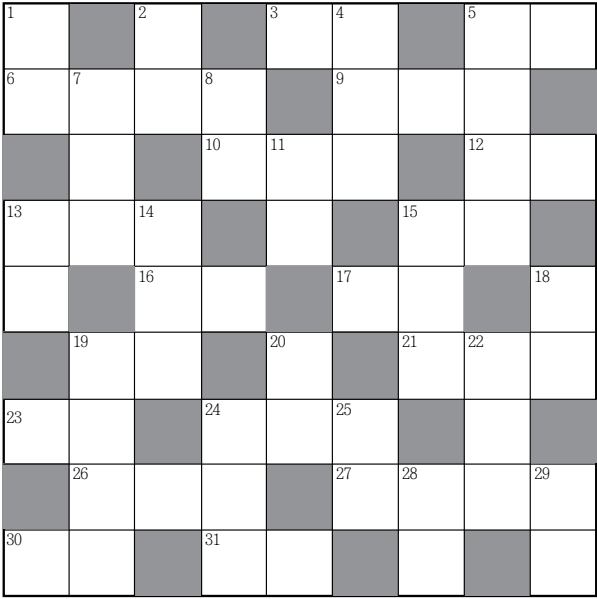
교회건축은 은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Rio Colorado 교회(김태홍 조성순 전도사님 가정) 건축은 예정대로 잘 마쳤습니다. 5월 24일에 헌당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테구시갈파에 있는 Villeda Morales 교회(뉴저지동산교회)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중순에는 마칠 예정입니다. Santa Babara 지역의 Nisperales 교회(캐나다 밴쿠버 한사랑교회)는 4월 중순부터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아름답게 완공되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격을 하게 됩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SEAN 목회자 훈련은 3월에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제3권을 하고 있습니다. Olvin, Joel의 멕시코 비자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두라스 사람들의 불법 체류로 인하여 멕시코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Brenda가 가정사정으로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Passing the Blessing 사역은 마을마다 돼지들이 세끼를 낳아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브리데이교회 유만수 집사님께서 오신지가 었그제 같은데 떠나실 시간이 다가옵니다. 시골 생활은 늘 단순하고 단조로운 생활인데 오셔서 저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동안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세균 최은경 선교사 드림
이메일: segyunjang@gmail.com

십자말 • Cross Word (75)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3. 사나아이(욥3:3).
5.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하였더라(창39:6).
6. 공관복음서 중 둘째.
9. 큰일과 작은 일(삼상20:2).
10. 성막의 문(출26:36).
12. 새알하여 미워함(약3:16).
13. 종교, 미신 또는 주의 사상 등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명).
15. 평평한 들(대상27:28).
16. 코밀, 톱, 빵에 나는 털(레13:29).
17. 만지와 흙(삼상2:8).
19. 가장을 중심으로 한 부부나 어머니와 자녀들의 모임(갈6:10).
21. 오랜 시일을 두고 오는 비(겔34:26).
23.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이겼 한 그릇에 팔아버렸다(창25:34).
24. ○○○이 포도청(속담).
26. 몸에 상처를 입은 사람(렘37:10).
27. 모암팡에 있는 동네 이름(사15:8).
30. 군세고 큼(단8:8).
31. 사내가 아내를 맞는 일(고전7:33).
31. 상서로운 빛(사21:4).

<세로 푸는 열쇠>

1. 이스마엘의 아들(창25:14).
2.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사(눅24:51).
4. 대한민국 국보 제1호.
5. 레위인으로 악사였다(대상15:21).
7. 짐승 껍질로 만든 신발(겔16:10).
8. 사람의 발음기관에서 생기는 음향(욥37:4).
11. 몹시 심하다(시119:107).
13. 밝은 빛(속14:6).
14. 보라색의 투명한 6각 기둥의 결정체(출28:19).
15. 앉장할 때 땅위에 봉분을 안 만들고 하는 매장(눅11:44).
18. 자기를 겸손하여 낮춤(고후10:1).
19. 가족으로 만든 부대(삼상16:20).
20. 간절히 구함(렐1:4).
22. 스블론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성읍(수19:11).
24. 예수님(벧전5:4).
25. 수레나 쟁기를 끌기 위해 마소의 목에 얹는 기구(마21:5).
28. 사람의 말을 적는 부호(출32:15).
29. 아셀사람 헬렘의 둘째 아들(대상7:35).

십자말 정답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www.lapioneertour.com

P.I.O.N.E.E.R P.I.L.G.R.I.M T.O.U.R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대표전화 714-351-0124

품위있는 성.지.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와 함께 하시면 순례가 은혜스럽습니다.

여행상품 · 일정

터키/요르단/이스라엘-12일 \$3700
* 출발일: 4월4일, 18일/5월2일/9월19일/10월3일, 17일/10월31일

터키/그리스/이태리-12일(13일) \$3500
* 출발일: 4월5일, 11일, 25일/5월3일, 9일/5월31일/7월26일/9월20일, 27일/10월10일, 11일, 25일(13일)/11월7일, 28일

터키/그리스-10일 \$2800
* 출발일: 4월5일, 19일/5월3일/9월20일/10월4일, 18일/11월1일

터키/이스라엘-10일 \$3200
* 출발일: 4월12일, 26일/5월10일/9월11일, 25일/11월8일, 29일

터키/뱃모/그리스-11일 \$3300
* 출발일: 4월26일/5월24일/6월28일

터키/그리스/이스라엘-12일 \$3800
* 출발일: 4월19일/5월17일/6월21일/7월26일/9월13일/10월11일

요르단/이스라엘-9일 \$3200
* 출발일: 4월6일, 20일/5월4일, 18일/6월1일/9월28일/10월12일, 26일

이태리/(요르단)/이스라엘-9/11일 \$4200
* 출발일: 4월13일, 27일/5월11일/7월24일/9월14일/10월5일

체코/독일/스위스/프랑스-10일 \$4000
* 출발일: 4월13일/6월14일/9월20일/10월18일

체코/독일/스위스/이태리-10일 \$4000
* 출발일: 5월10일/8월9일

※ 유류할증료, 항공세 포함
※ 비자비, 출입국세, 현지가이드비, 공동경비, 개인경비는 별도
※ 여행자 보험은 옵션

PIONEER PILGRIM TOUR
새로운 성지순례의 지평은 연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주소: 17510 Pioneer Blvd, #210 Artesia, CA 90701
* E-mail: choigh1115@gmail.com, choigh1115@hanmail.net * 파이오니아 사무실번호: 562-403-3360, 3363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게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사역 현장을 찾아서 (3)

제 32회 HYM청년연합집회(18일, 19일)를 준비하는 HYM 스텝
각자 삶속에서 예수그리스도 복음 전파되길

HYM(남가주청년연합회, 대표 더글러스킴)이 주최하는 제32회 HYM 청년연합집회가 오는 18일(토)과 19일(주) 양일간 은혜 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내 월드플레이어센터에서 '내 삶의 목적'(Purpose of my Lif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집회는 지난 1999년 첫 번째 집회를 시작으로 16년째 되는 집회이다. 더글러스킴 대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글로벌커피브레이크 대표인 백은실 집사가 강사로 나선가운데 세 미나를 갖게 된다. 세미나는 각자의 기질과 유형,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을 살펴봄여 자신의 이미지를 아름답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잘 관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마음을 얻는 커뮤니케이션을 배우고 실행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내 삶의 목적” 주제... 주 강사 송민우 목사

백은실 글로벌커피브레이크 대표 '이미지 관리와 감동 커뮤니케이션' 세미나도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33절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는 것처럼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변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집회를 통해 이 땅에 이 의미들이 전해지며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속에서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길 소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의 주강사는 에리조

나 등대교회 담임인 송민우 목사. 송민우牧사는 등대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HYM에서 찬양 인도자로 헌신해왔다. 송牧사는 "모든 청년들이 삶의 목적을 찾기 위해 고민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죠"라며, "청년들이 찾고자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이번 집회에서 왜 하나님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일까에 대해 나누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에 대해 함께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집회 찬양인도는 첫날 HYM 연합찬양팀이 하게 되며, 둘째날은 해븐스밴드(리더 최천국 전도사)가 맡는다. 또한 이번 집회는 토요일과 주일 저녁집회 외에 특별세미나가 마련돼 있다. 토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이미지 관리와 감동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공동체 안에서 한마음이 돼 충성스럽게 이루어 나간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더글러스킴 대표는 "이번 집회를 통해 진정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죽을 때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결단하고 나가는 집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714)393-5135 (박준호 기자)

LA다저스 투수 클레이튼 커쇼 초청
APU, 크로스트레이닝 간증집회



LA다저스 투수 클레이튼 커쇼 초청 크로스트레이닝 간증집회가 APU에서 열린다

“믿음과 스포츠의 대화” 주제

아주사과시픽 대학교(APU 총장 존월레스 박사)는 오는 4월 19일(주) 오후 7시 30분 본교 웨스트캠퍼스에 위치한 '벨리스 이벤트 센터'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인 LA다저스 투수 클레이튼 커쇼를 강사로 초청, "믿음과 스포츠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크로스 트레이닝' 간증집회를 갖는다. 클레이튼 커쇼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류현진 선수와 같은 팀 소속이며, 지난 4년간 미국 최고의 투수에게 수여하는 '사이영상'을 3번이나 수상했고, 또한 매년 최고의 투수와 리더십을 발휘한 LA 다저스 선수에게 주는 '로이 캄펠러'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현역 최고의 투수이며 강한 정신력의 소유자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그는 지난 2008년 프로로 데뷔한 이래 아프리카 선교지 및 지역사회에 많은 물질과 재능을 기부하고 있으며, 2012년 부인인 엘렌과 함께 집필한 "커쇼의 어라이즈"란 책에는 그의 인생 철학과 신앙심을 설명한바 있다. 특히 메이저리그 최고의 연

봉을 받고 있는 커쇼가 "인생에서 돈과 지위가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해야 하고, 예수님의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고 말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더해준다. APU에서는 진실한 신앙심으로 똘똘 뭉친 야구 천재 클레이튼 커쇼를 초청해서 그의 스포츠관, 믿음, 가정, 관심사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간증 집회 및 좌담 형식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게스트 스피커로서는 ESPN 스포츠 분석가이며 칼럼리스트인 크리스 브로사드와 커쇼의 단짝 포수인 AJ 엘리스가 찬조 출연한다. 이번 집회는 입장권을 구입해야만 참석할 수 있는데 입장석 중 VIP석은 이미 매진됐다. 일반 20달러, 학생 10달러, APU 학생과 관계자들은 5달러에 입장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7세 이하의 아동들은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입장권은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다. (박준호 기자)



남부장로교회 26일 교육관 헌당예배
15000스퀘어피트...체육관, 예배실, 교실 등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시에 위치한 남부장로교회(담임 송성섭 목사, ARPC 교단소속)가 교육관을 신축하고 오는 4월 26일 헌당예배를

갖는다. 남부장로교회는 이날 오후 5시 교단관계자들과 이웃교회 성도들을 초청한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남부장로교회의 형편에 따라 어린이들과 영어권 사역에 필요한 시설 확장을 놓고 지난 3년에 걸쳐 기도하고 준비함으로 이번에 시공을 마치게 됐다. 새로 준공한 교육관은 면적 15,000스퀘어피트이며, 6000스퀘어피트 친교실 겸 체육관, 두개의 예배실, 12개의 교실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써 남부장로교회는 이미 있던 기존 건물과 합해 총 25,000스퀘어피트의 시설을 갖추게 됐으며 500여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보금자리가 됐다. 본 교회 교육 부서에서는 CM(영아, 유치, 유년, 초등부)과 YM(중등부, 고등부), 영어부와 한어부의 대학부와 EM(영어목회부), 그리고 AWANA Club과 한글학교 외 다양한 에능학교들을 운영 중에 있다. 담임 송성섭 목사는 "이번에 부흥성회 함께 드리는 헌당예배에 많

이 참석하셔서 축복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앞으로 커뮤니티를 위해서도 많은 봉사를 하는 건물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산토아마로 디아스포라선교예배당 건축

브라질 디아스포라선교회(강성철 이화평)는 오래전에 뜻있는 분들이

선교의 목적으로 구입한 산토아마로 대지위에 산토아마로 디아스포

라 선교예배당을 건축하고 오는 5월 10일 오후4시에 임당감사예배를 드린다. 사방 8킬로 안으로는 장로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에 세워지는 선교지는 현재 교인이 한 사람도 없지만 매주 노방전도 및 가가호호 방문전도를 하고 있다. 디아스포라 산토아마로 주 사역은 미래 리더십 개발연구소를 통하여 평신도 지도자, 주일학교교사, 음악지도자, 집사와 장로를 대상으로 학점제 청지기 교육을 하고자 한다. (7사제제공: 디아스포라선교회)

제 32회
HYM 청년 연합 집회

PURPOSE
OF MY LIFE

1 Corinthians 10:31-33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Do not cause anyone to stumble, whether Jews, Greeks or the church of God—even as I try to please everybody in every way.
For I am not seeking my own good but the good of many, so that they may be saved.

Speaker
송민우 목사 (Arizona 등대교회 담임)

†특별 세미나†
4월 18일(토요일) 오후 3시
Global Coffee Break 백은실 대표

When
2015. 4. 18-19 (토요일, 주일)
오후 7시

Where
은혜 한인 교회
World Prayer Center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HYM : 714)393-5135 (Douglas Kim 대표) 후원: OC 교회 협의회, 은혜 한인 교회